

BECAUS

2023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CAU x AI
AI 시대를 넘어
AI 세대로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CHUNG-ANG UNIVERSITY

입학처장 메시지

004

I.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016
2. 지원자격	017
3. 전형일정	017
4. 수능최저학력기준	018
5. 전형방법	018

II. 2022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022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024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026

III. 인문계열/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30
2. 2022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32
3.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034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3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38
2. 2023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50

V.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063
2. 인문사회계열 II	076
3. 경영경제계열 I	090
4. 경영경제계열 II	103



입학처장 메시지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김영화 교수입니다.

AI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모든 분야에서 시대를 이끌어갈 AI 세대를 육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가 2023 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출간합니다.

중앙대학교의 논술전형은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가늠하고 검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오랫동안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서술하는 능력은 대학에서의 지식 습득은 물론, 사회에 진출해 수행할 직업 활동에서도 필수로 요구되고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즉, 논리적 서술 능력은 대학입학,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험생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배양해야만 하는 중요한 기초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을 통해 487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인문계열 219명, 자연계열 268명을 모집하며,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논술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지만 실제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논술시험을 충실히 준비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형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중앙대학교는 2023학년도 논술전형에서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덜어 주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험생, 학부모님,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논술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올해도 중앙대학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
1. 출제 범위와 문제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3. 논술 문제, 예시 답안, 채점기준 등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

중앙대학교는 이미 5월에 5,5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논술시험을 실시하여 30여 명의 교수진이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평가하고, 첨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술가이드북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년 출제 문제, 올해 출제 방향, 채점기준 등을 제시했으며, 감점이나 가산점의 요인까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논술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은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지침서이자 필독서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정성들여 발간하는 논술가이드북을 꼼꼼히 탐독한다면,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의 도움이 결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인재로 거듭날 수험생 여러분을 미래 교육의 시작점이자 AI 시대를 넘어 AI세대를 육성하는 ‘중앙대학교’로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힘든 입시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봄꽃이 활짝 핀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김영화

AI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한 교육시스템 **CAU AI+X**

중양은 급변하는 시대를 먼저 내다보며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중양은 모든 전공이 AI와 만나는
특별한 교육시스템 'CAU AI+X'로 AI 시대를 선도합니다.

중양은 남들이 가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창조하며 앞선 교육시스템을 통해
AI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하는 교과과정

- AI 시대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인재

중앙대학교는 AI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AI학과와 대학원, AI 공동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 구분 없이 중앙인 모두가 AI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AI 관련 강의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구성하여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 시대를 맞아 변화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변화를 만들고 시대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빈치 AI대학원’ 시대의 개막

- AI 분야 강화, 10년간 190억 원 지원

중앙대학교는 2021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대학교는 2022년 국가 공인 인공지능대학원인 다빈치 AI대학원을 개원하고 AI 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AI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석·박사 과정 50명, 전임교원 18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전교생 AI 교육을 위한 다빈치시아카데미와 산학협력을 위한 다빈치AI공동연구소도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년간 / 최대 190억 원 지원



‘AI 인문학 연구’ 활성화

- 국내 유일 인공지능 인문학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AI 인문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우리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인공지능 전문매체 ‘The A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인문학 및 융합학문에 대한 공동연구·자문에 협력하고, 학술세미나·정책 토론회 등 학술 및 동향정보 교류 등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빈치가상대학’ 대학교육 신대륙

- 서울 주요 대학 최초! 가상대학 설립

중앙대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다시 한번 교육혁신에 나섰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운영하는 다빈치가상대학(Virtuallege)은 실감미디어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운영방식으로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만드는 디지털 신기술 중심 단과대학입니다.

학생들은 확장현실(XR) 등 가상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학습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랜선 선배와 함께하는 CAU 캠퍼스 라이프 학생지원 스마트 시스템

기존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학생들이 더 편리하고 진화된 기술을 원할 때
중앙은 그들보다 더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중앙의 학생 지원 스마트 시스템은 융복합 시대의 미래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ART





학생역량성장지원 시스템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들 전반에 걸쳐 학업활동과 역량개발, 사회 진출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대학교만의 학생지원 시스템입니다.

학생 자기계발
통합관리 시스템
레인보우시스템

Rainbow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이 어드바이저

e-Advisor

똑똑한
One-Stop 궁금증 해결사
챗봇 찰리



“대학생활의 동반자와 함께하니 좋지 아니한가”

신** 학생(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수업시간에 내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레인보우시스템에서 다양한 합격자 자소서를 접하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또, 진로를 '회계사'로 결정하면서 여기서 제공하는 회계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게 되었다. 레인보우시스템은 학교생활의 동반자다.

“내겐 너무 고마운 랜선 선배랍니다”

이** 학생(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대학 입학 전, 두려웠던 것 중 하나가 수강신청이었다. e-Advisor는 졸업요건에 따라 정량적으로 내가 이수해야 할 강의를 알려주고, 지금까지 내가 이수한 강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강의를 더 들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e-Advisor는 나의 랜선 시간표 선배라고 생각한다.

“중앙의 검색엔진, 찰리에게 물어보세요”

김** 학생(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3학년 편입생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앙대학교 챗봇 찰리를 만났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챗봇 찰리는 내게 학교 전반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학과 사무실 연락처는 물론, 교내 장학금 종류와 신청 시기, 수정신청, 졸업요건 등 찰리는 나의 대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AI 기반 학습자를 위한 최적의 매니지먼트

CAU e-Advisor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CAU e-Advisor는 학생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학업 관리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이를 구체화하며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사 및 학습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전공 로드맵을 제공하며,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빛나는 중앙의 성과

중앙은 학생의 꿈을 실력으로 바꿔주고, 무엇이든 꿈꾸고 이를 수 있도록
너른 광장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를 키우는 건 고도화된 미래기술과
혁신교육의 단단한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으로 중앙은 학생 스스로가
무한한 가능성을 놀라운 실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



공인회계사시험 (CPA)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CPA)

CPA
106명

*2021

CPA 합격자 배출 수

국내대학
3위

*2년 연속(2020, 2021)



연구 성과

화학신소재공학부 이상혁 교수 연구팀,
Supra 입자 활용 新 효소
캐스케이드 반응 플랫폼 개발

- Supra 입자를 활용한 빠르고 효과적인
新 효소 캐스케이드 반응 플랫폼 개발
-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국제공동연구

영어교육과 이장호 교수,
영어교사의 모국어 사용이 갖는
교육적 강점 증명

- 제한적 모국어 사용, 영어교육의
더 높은 교육적 효과 입증
- 언어 분야 세계 최상위 학술지
'Language Learning' 게재

생명과학과 김근필 교수 연구팀,
염색체 구조적 안정성 유지 위한
'코히신 복합체'의 형성 원리 규명

- 코히신 인자 REC8, STAG3의
다양한 기능 세계 최초 규명
- Genome Biology 발표

학생성과



취업률

71.3%

서울지역 주요대학 취업률 최상위권 기록

*2020.12.31. 서울캠퍼스 기준

임용시험 합격

116명

중등교사 및 유치원 임용시험(2022)

취업률, 주요대학 최상위권 취업 명문으로 도약

중앙은 서울 지역 주요대학 취업률 최상위권인 71.3%를 기록하며, 취업 경쟁력을 굳건히 했습니다. 유지 취업률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3차, 4차 각각 86.6%, 85.4%)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재학생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전문 부서인 다빈치인재개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다빈치인재개발센터에서는 매년 동문 초청 CAU 직무박람회, 해외취업설명회, 온·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한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지 취업률: 취업 후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3차: 9개월 / 4차: 11개월 이상)

미래기술 선도대학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플랫폼 연구소 개소

한수원, LH,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결정체

중앙은 탄소중립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결하고, 스마트 ESG 경영으로 연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플랫폼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플랫폼 연구소는 2030 탄소중립 조기실현과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혁신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주택토지공사,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함께 협력해 만든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설립에 힘을 모은 4개 기관의 공통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여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를 거점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산업과 나노 거버넌스의 분야별 플랫폼을 연계한 선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중앙 인프라

중앙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자꾸 가고 싶고, 계속 머물고 싶은 꿈의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교육환경 개선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의공간소에서 아이디어를 손 안의 제품으로 만들어보며 다방면에 뛰어난 융복합 창의인재로 성장합니다.



복합 창업지원 공간 크리에이티브 컴플렉스



크리에이티브 컴플렉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복합 창업 지원 공간입니다. 중앙은 창업 교육부터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창업펀드 투자 유치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중앙인은 누구나 이곳 크리에이티브 컴플렉스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보며 무한한 가능성을 손 안의 가치로 만들어갑니다.



토론에 적합한 첨단 강의실 다빈치 클래스룸



중앙은 학생과 교수 간 양방향 소통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미래형 캠퍼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다빈치 클래스룸입니다. 총 23개 실로 구성돼 있는 다빈치 클래스룸은 실시간 수업 전송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토론 수업을 지원하는 첨단형 강의실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토론에 참여합니다.



상상 실현 창의공작소 MakerSpace



첨단 디지털 제조 장비를 활용해 학생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활동 공간입니다.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부에 마련된 세미나 및 액티비티 홀과 공작기계실에서 실습수업을 진행하거나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최첨단 장비: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탭 머신, 컴프레서, 아르곤 용접기 등 대형 공작 기계 배치



국내 대학 최초 실시간 렌더링 가능 CAU XR 스튜디오



중앙은 소니코리아와 협력해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XR(eXtended Reality)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CAU XR 스튜디오는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 등 혼합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초실감형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시설입니다. 살아 숨 쉬는 정교한 배경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적용해 학습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실감형 콘텐츠 기반 고품질 강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중앙과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는 'XR 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도 기술 지원을 비롯해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F.E.S.T Library & more



혁신의 아이콘 중앙은 학생들의 학습공간의 편의성을 위해 시설 인프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안성캠퍼스 학술정보원(도서관)에 F.E.S.T Library와 예술·체육 특화관을 조성하고, 제2열람실과 로비의 학습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중심 시설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F.E.S.T Library는 Fun, Eat, Study, Talk라는 뜻을 담고 있는 카페형 창의학습공간입니다. 또한, 서울캠퍼스의 중앙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I.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016
2. 지원자격	017
3. 전형일정	017
4. 수능최저학력기준	018
5. 전형방법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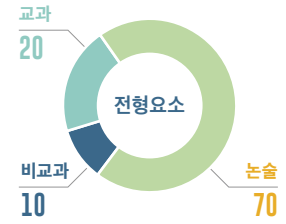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 논술 70%, 학생부 30%(교과 20% + 비교과(출결) 1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논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며 인문계열은 통합형, 자연계열은 단일 교과형(수학, 과학)으로 출제
 -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 논술문제, 예시답안, 채점기준 등 모든 정보 공개
- 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 반영
비교과(출결): 무단/미인정 결석 1일 이하이면 만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6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5					
			영어영문학과		10				화학과		5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4				생명과학과		6					
				프랑스어문학	4				수학과		5					
				러시아어문학	4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8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4			도시시스템공학			5					
				중국어문학	4			건축학부		10						
				철학과				5		화학신소재공학부		12				
			역사학과		5			기계공학부		23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0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6	창의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5						
			공공인재학부	15				융합공학부		10						
			심리학과	8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20						
			문헌정보학과	4				AI학과		5						
			사회복지학부	6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9				약학		약학부	22					
			사회학과	7	의과			의학부		14						
			도시계획·부동산학과	5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16					
			사범	교육학과	4				안성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7			
				영어교육과	7			식물생명공학				6				
		경영경제	경영학부	경영학	57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10				
				글로벌금융	6						식품영양		7			
			경제학부	11	시스템생명공학과			8								
			응용통계학과	4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18						
			광고홍보학과	6				공과		첨단소재공학과		7				
		국제물류학과	5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3												
		계						219		계					268	
		논술전형 총계												487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20년도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21. 6. ~ 2026. 6.]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2019. 3. ~ 2023.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일정

1) 전형전체 진행일정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2. 9. 13.(화) 10시 ~ 16.(금) 18시	
서류제출	2022. 9. 13.(화) ~ 20.(화)(우편발송 접수일 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 제출
고사장 조회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2. 11. 22.(화) 14시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시험장소: 서울캠퍼스 내 고사장
논술고사	자연: 2022. 11. 26.(토) 인문: 2022. 11. 27.(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4시	• 세부 발표 및 등록 일정은 홈페이지 추후 공고
최초 합격자 문서 등록	2022. 12. 16.(금) ~ 19.(월)	
충원 합격자 발표	2022. 12. 19.(월) ~ 26.(월) 18시까지	
합격자 전체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 9.(목)	

※ 상기 일정 및 시험장소는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예정

2)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구분	11. 26.(토) - 자연계열		11. 27.(일)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1교시 (10:00 -12:00)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경영경제	경영학부 전체,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전체,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건축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과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전체, 식품공학부 전체, 시스템생명공학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2교시 (14:00 -16:00)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사범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인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 전체, 아시아문화학부 전체, 철학과, 역사학과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약학	약학부		
	의과	의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 지원한 모집단위가 배정되어 있는 시험일 및 시간에 응시해야 함(타 시험시간 응시할 경우 퇴실 조치)

※ 입실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 및 진행 방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확진자는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수험생 유의사항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수능최저학력기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재	계열	모집단위	영역별 기준		탐구영역 반영방법	공통
서울	인문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약학부, 의학부 외 전체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 1), 영어, 과탐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약학부, 의학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2과목 평균 반영	
안성		전체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 약학부, 의학부의 경우 탐구영역 2과목 평균은 소수점 자리 버림 없이 그대로 반영(4개 영역 등급 합 5.5인 경우 미충족)

※ 자연계열 전체 지원자는 과학탐구 과목별 I+II 중복 선택 불가(ex. 화학I+화학II 불가)

※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논술 70% + 학생부 교과 20% + 학생부 비교과(출결) 10%

※ 전형 최고점 1,000점 기준이며 결격자의 경우 0점 처리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대상: 2021년 12월 ~ 2023년 2월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교과		비교과(출결)
반영 교과	반영 교과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점수 활용 ※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교과별/학년별 가중치 없음	무단/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환산점수 반영

- ②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방법
국내고교 2021년 2월 이전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자 포함)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3) 논술

① 출제수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출제

② 출제유형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시험시간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3문항)	120분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	언어논술(2문항), 수리논술(1문항)	
자연	자연	전 모집단위	수리논술(3문항), 과학논술(1문항-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중 택 1) ※ 원서접수 시 응시할 과학과목을 선택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③ 출제범위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인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교과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사회교과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경영경제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자연	자연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기하
		과학논술	과학교과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중 택 1하여 응시함(원서접수 시 응시과목 선택) (생명과학) 통합과학,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물리학) 통합과학, 물리학 I, 물리학 II (화학) 통합과학, 화학 I, 화학 II

II.

2022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022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024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026



2022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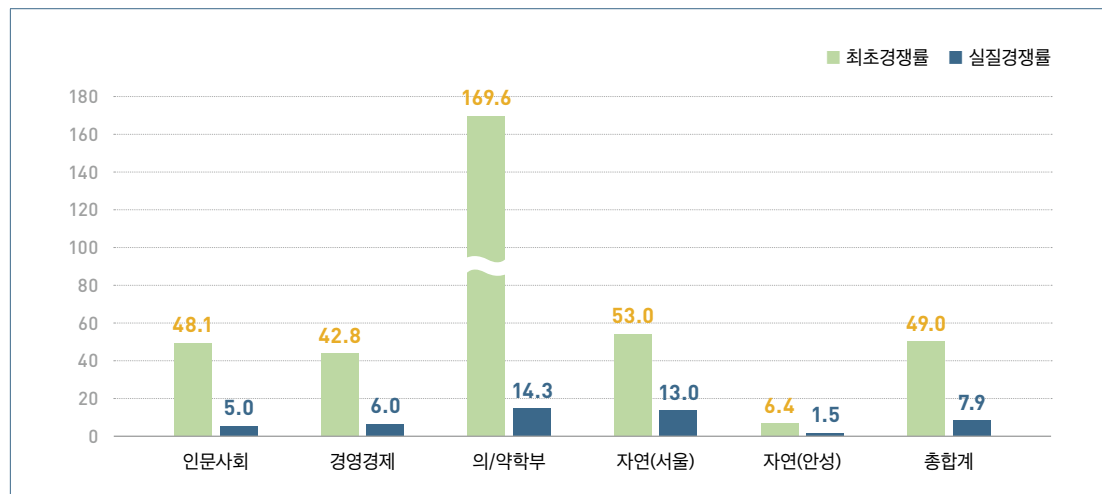
모집인원 및 경쟁률

- 논술전형 경쟁률 49.0:1(701명 모집, 34,370명 지원)
- 의학부(194.4:1), 약학부(147.3: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125.8:1), 소프트웨어학부(109.5:1), 화학신소재공학부(88.1:1) 최상위 경쟁률 기록

[표1-1] 논술전형 경쟁률 및 추가합격률

논술유형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초경쟁률	실질경쟁률	추가합격률
인문사회	174	8,374	48.1	5.0	25.3%
경영경제	144	6,170	42.8	6.0	17.4%
의/약학부	38	6,444	169.6	14.3	15.8%
자연(서울)	240	12,708	53.0	13.0	18.3%
자연(안성)	105	674	6.4	1.5	18.1%
총계	701	34,370	49.0	7.9	19.7%

[그림 1-1] 2021학년도 논술전형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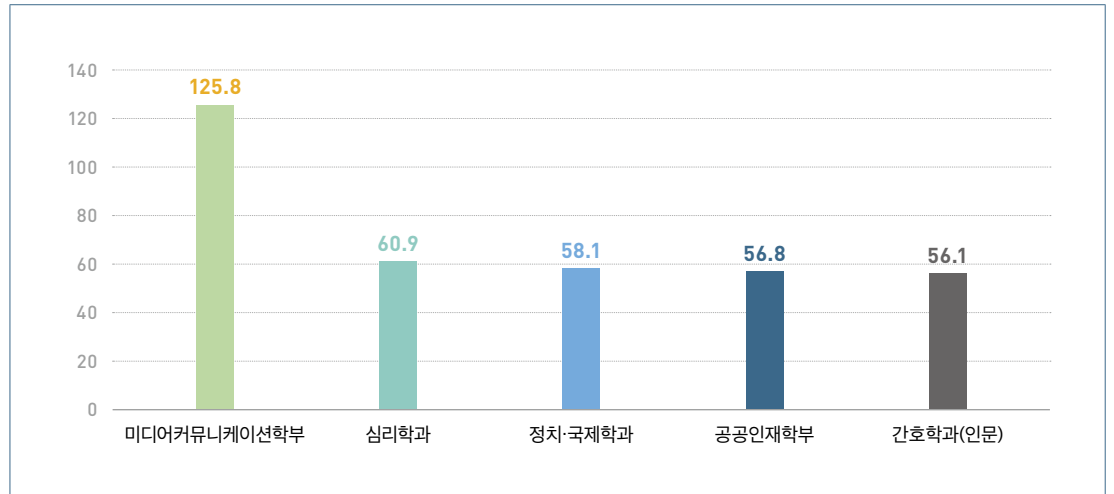


2022학년도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전체 49.0대 1로, 전년도(47.41: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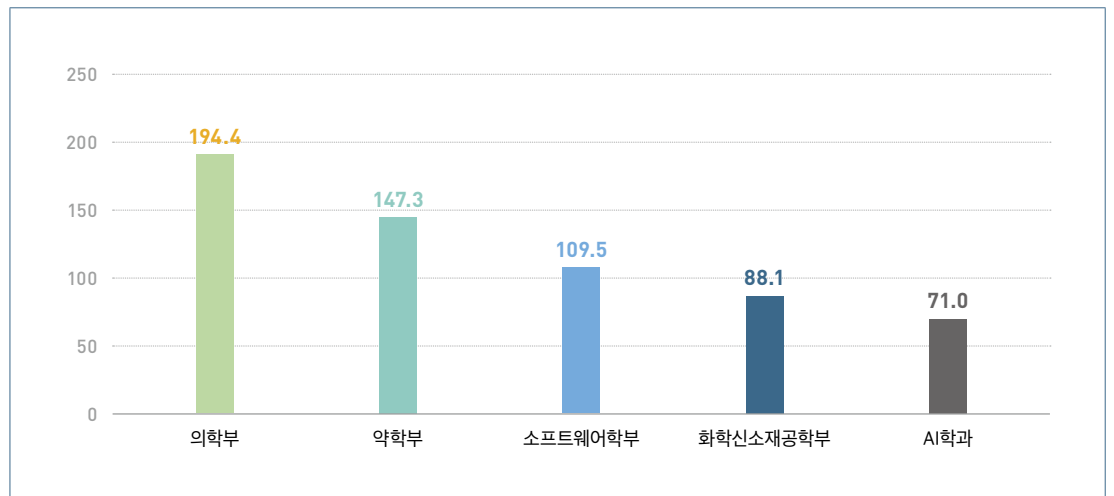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수시모집 타 전형에 비해 높지만, 실질경쟁률은 최초경쟁률의 5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 후 공지되는 경쟁률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논술계열별 최초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응시율/수능최저기준 통과율 적용)을 비교해보면 **인문사회논술은 48.1:1→5.0:1**, **경영경제논술은 42.8:1→6.0:1**, **자연계논술은 51.8:1→9.9:1**로 대폭 낮아진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소재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의 2022학년도 평균경쟁률은 53.0:1로, 지난해(52.1: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의학부의 경우 194.4:1의 경쟁률로 지난해(217.3:1)와 비교하여 소폭 하락하였으며, 신규 모집한 약학부도 147.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안성 소재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는 자연계열 평균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림 1-2] 인문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학과)



[그림 1-3] 자연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학과)



계열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다섯개 학과는 [그림 1-2],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의 경쟁률이 경영경제계열 학과보다 높았다. 또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와 심리학과는 9년 연속 최상위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열에서는 의학부의 경쟁률이 전년도(217.3:1)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의학부와 약학부를 제외하면 소프트웨어학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2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70%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33% 고3(졸업예정자)로 나타남(인문, 자연 합격자의 33.4%, 31.5% 고3(졸업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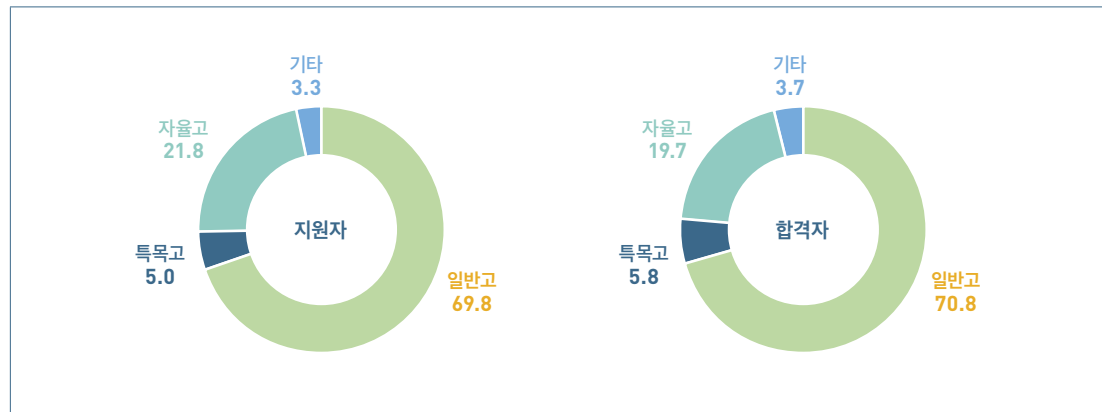
1) 고교 유형별 분석

합격자의 67%가 일반고 출신이며 23%가 자율고, 8%가 특목고 출신 학생이었다. 특목고의 지원 및 합격비율은 인문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낮았다.

[표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인문	70.0%	9.5%	16.6%	4.0%	70.5%	10.1%	14.5%	4.9%
자연	69.7%	1.8%	25.7%	2.8%	71.0%	2.2%	24.1%	2.7%
계	69.8%	5.0%	21.8%	3.3%	70.8%	5.8%	19.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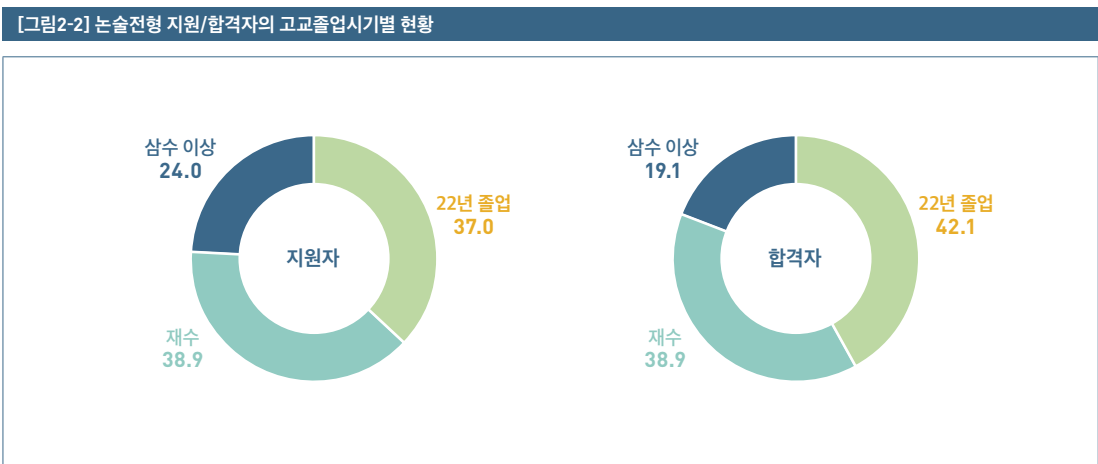
[그림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2)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합격자 중 42.1%가 고3(졸업예정자) 학생이었다. 고3 학생이 재수생보다 다소 강세를 보였으며, 계열별로 인문계열에서는 재수 지원자(47.3%)가 자연계열에서는 고3 지원자(43.8%)의 합격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22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22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인문	39.3%	41.7%	19.0%	40.1%	47.3%	12.7%
자연	35.4%	36.9%	27.8%	43.8%	31.6%	24.6%
계	37.0%	38.9%	24.0%	42.1%	38.9%	19.1%



2022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교과 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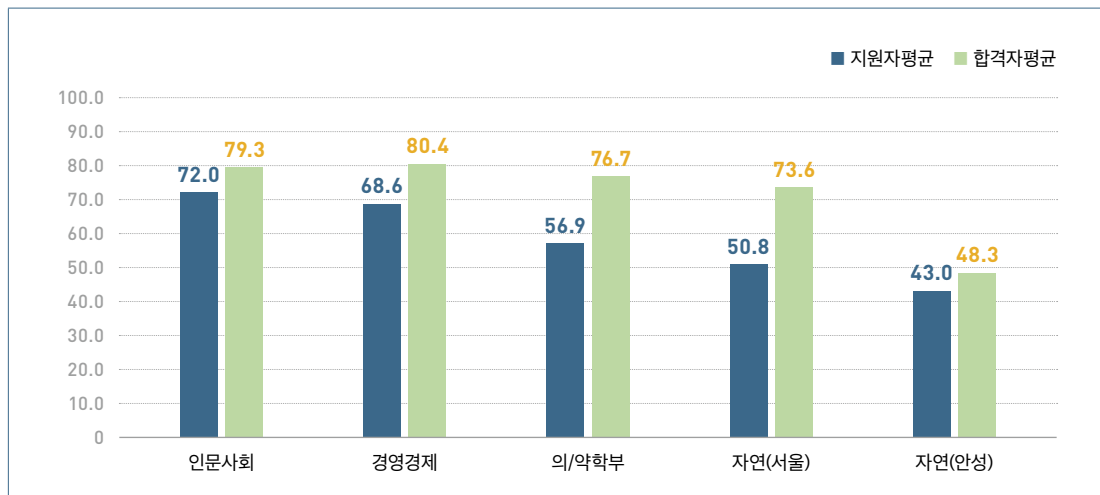
- 합격자 논술 평균 인문사회 79.3점, 경영경제 80.4점, 자연(서울,의/약학부 제외) 73.6점
-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 수리문항의 고득점이 중요
- 2023학년도 교과 성적은 상위 5과목만 반영함(전년도 상위 10과목)

1) 논술성적 분석

[표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구분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사회계열		72.0	7.4	79.3	3.2
경영경제계열		68.6	10.3	80.4	2.8
자연계열	의/약학부	56.9	16.1	76.7	8.2
	서울(의/약학부 제외)	50.8	13.1	73.6	6.2
	안성	43.0	10.2	48.3	9.0

[그림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본교는 수험생 친화적인 논술을 추구하고 있다. 논술전형에 출제되는 제시문 및 개념은 모두 고교과정의 교과서에서 인용된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본교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한다면 논술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단위(학과)에 따른 논술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사회논술 또는 경영경제논술을 응시하게 된다. 인문사회논술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논술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9.3점, 경영경제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80.4점이다. 경영경제논술의 경우 합격자가 수리문항을 고득점하는 경우가 많아 인문사회논술에 비해 합격자 평균성적이 높은 편이다. 수리논술의 경우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접근과정과 정답을 작성하되,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계열은 단일교과형(수학 3문항, 과학 1문항(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택 1))으로 수학의 비중이 크다. 자연계열 서울(의/약학부 제외)의 합격자 논술 평균점수는 73.6점이나 표준편차가 인문계열 논술유형들에 비해 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합격자들 중에 평균보다 표준편차만큼 낮은 학생도 합격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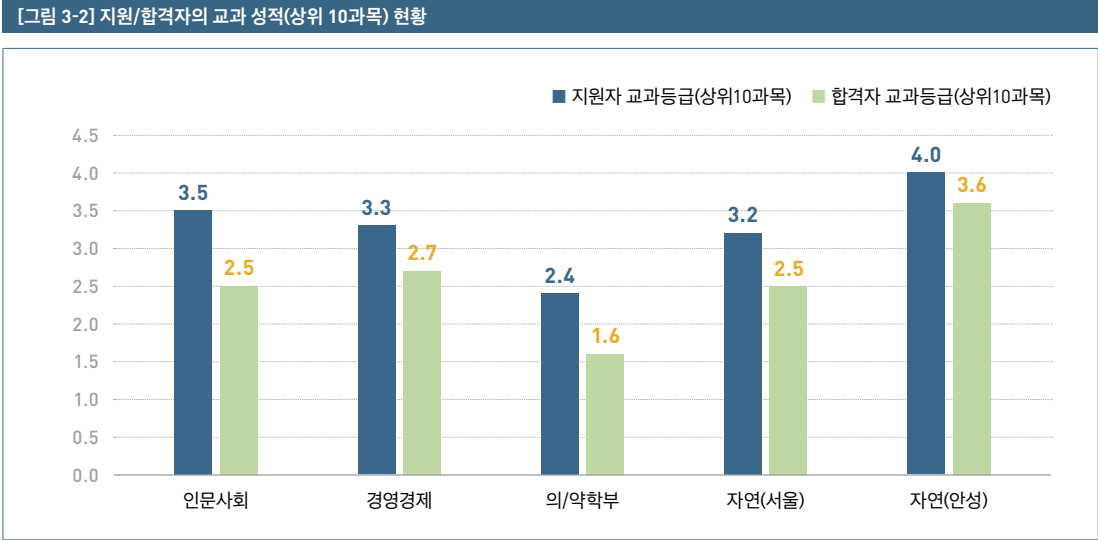
자연계열 안성캠퍼스 소재 학과의 합격자 논술 평균점수는 48.3점, 표준편차 9.0으로 합격자의 점수대가 낮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면 논술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교과 성적 분석

[표 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10과목) 현황

구분		지원자		합격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사회계열		3.5	1.3	2.5	1.0
경영경제계열		3.3	1.2	2.7	1.0
자연계열	의/약학부	2.4	1.1	1.6	0.7
	서울(의/약학부 제외)	3.2	1.1	2.5	1.0
	안성	4.0	1.2	3.6	1.1

* 인문사회, 경영경제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중 상위 10개 과목
 *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 중 상위 10개 과목



본교 논술전형의 교과 성적 반영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과목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상위 과목에 한해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이 석차등급이 가장 높은 과목이 반영되며, 2023학년도부터는 인문,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5과목을 반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반영대상은 2023학년도 모집 기준으로 2021년 12월 ~ 2023년 2월 국내고교 졸업(예정)자이며, 그 외에는 논술 성적에 의한 비교 내신으로 반영된다.



III. 인문계열/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 | | |
|----------------------------------|-----|
|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 030 |
| 2. 2022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 032 |
| 3.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 034 |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방식은 '통합 논술'로 개별 교과목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통합 논술은 수험생들의 이러한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수험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통합 역량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시험 문제에 사용되는 제시문들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통합 논술시험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통합 논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묻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제 구성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언어 논술형 문항 3문제,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은 언어 논술형 2문항과 수리 논술형 문항 1문항으로 되어있다. 언어 논술형 문항과 수리 논술형 문항에 대한 답안 작성 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사항은 아래와 같다.

KEYPOINT

- 통합 논술에 대하여 이해하기
- 교과서에서 다뤄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활용
-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과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의 차이점 알기

답안 작성을 위한 TIP

첫째, 언어 논술형 문제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정확한 독해력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논술 준비의 출발이다. 물론 독해력은 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다만 조금의 준비를 더한다면, 논술시험에 활용되는 개별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각 단위' 또는 '대비되는 생각 단위'를 담은 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글들을 선택하여 5~10분 내외의 정해진 시간 안에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즉, 교과서를 읽을 때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논술시험에 주어진 시간이 120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 논술의 답안은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쓰는 요약적인 글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 논지에 대한 독해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압축하여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시험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6~9개)의 제시문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제시문의 전체적인 논지를 제한된 시간 내에 파악하고,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의 글자수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답안의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 파악, 차이점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지의 재구성 등 문제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글쓰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통합형 논술에서는 여러 제시문들의 핵심 주제들을 활용하면서도 제한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논리적 구조를 갖춘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의 답안 구조는 문제 유형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론, 본론, 결

론의 형식을 갖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문제의 경우 질문에 나타난 제시문 간의 관계 및 문제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EYPOINT

-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기르기
-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으로 요약하는 연습하기
-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답안의 구조를 갖춘 글쓰기 연습하기

수리 논술형 문제

수리 논술형 문제는 수리적 능력에 기초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리형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은 수학 교과목에서 배운 특정 개념과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수험생이 제시문과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답을 찾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리적 과정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리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접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POINT

- 제시문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 답을 찾는 논리적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2. 2022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국제물류학과 전주현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에 합격한 전주현입니다.

Q.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현 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원하게 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A. 중앙대학교의 논술시험은 지문이 많고,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답안의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안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글자 수와 시간 안에서 핵심어를 뽑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각 제시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제시문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인 많은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 제한된 시간과 글자 수 내에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여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논술과 수능 시험 때 많이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논술과 수능 시험 당일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A. 평소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혀 긴장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논술과 수능 시험 당일에는 꽤 많이 떨렸었습니다. 시험 당일에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과 동일한 환경 조건으로 시간을 재면서 푸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시험이나 수능 국어와 같이, 많은 지문이 제시되는 시험에서는 지문의 내용들이 긴장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되겠지만 지문 내용들을 짧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을 치러 갔을 때, 학교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보고 가지 않아 교사장을 찾을 때 잠깐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교사장의 위치와 학교의 구조를 숙지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나만의 팁이 있다면?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활용방법도 공유해주세요.

A. 저는 논술 시험을 준비할 때 중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가이드북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논술가이드북에는 중앙대학교가 원하는 답안 작성의 방향, 기출문제, 예시답안 등이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이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작성한 나의 답안과 예시답안을 비교하며 예시답안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글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지문과 문제를 보고 답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뒤 예시답안을 보고, 이전 나의 답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여러 번 고치며 재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문이 있진 않은지, 글의 구조가 논리적인지, 답안에 핵심이 드러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시험을 대비할 때 실천처럼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심하게 긴장하면 평소 실력보다 글이 잘 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의 제한시간에 맞추어 문제마다 시간 배분을 하고, 원고지 형식에 맞추어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영경제 수리 논술 문제는 고교과정의 수학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논술시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적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 과정을 차분히 적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기출을 통해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고, 정형화된 양식에 맞추어 답안을 핵심 내용만 서술하는 것이 논술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평소에 수능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하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최저학력기준 충족뿐만 아니라 논술시험 대비에 있어서, 논술 기출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학, 비문학 지문을 접하는 것과 풀이 과정을 자세히 적어가며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하여 시험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권나영입니다.

Q.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영 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원하게 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A.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은 넉넉한 시간에 비하여 짧은 답안 작성 분량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지문과 각 문제마다 600자를 넘지 않는 비교적 적은 분량 내에 답안을 담아내는 것이 특색이고, 이를 위해 정해진 분량 안에 핵심적인 답을 좋은 짜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빨리 읽을 수 있고, 내용의 중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나만의 강점이 있어서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논술과 수능 시험 때 많이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논술과 수능 시험 당일엔 있었던 에피소드나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A. 우선 수능 시험 때, 첫 교시인 국어 시험부터 제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마킹 실수를 하고, 이어진 수학 시험에 서까지 여파를 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있던 국어 과목에서 실수를 하고 나니, 이대로 수능을 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며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논술시험에서도 생각했던 분량보다 너무 길게 써서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못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번의 시험에서 그렇게 두 번의 실수를 하다 보니, 다음 문제나 시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

다. 다만, 그 어느 순간의 실수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흔한 조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상황이 되어본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절실하고 강력한 것이 없더라고요. 결과를 바라기에 너무 부담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수능을 풀다가도, 논술을 풀다가도, 혹은 다른 중요한 일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시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나만의 팁이 있다면?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활용방법도 공유해주세요.

A. 원래 저는 글을 빨리 읽고 또 답안을 빠르게 쓰는 편이라, 분량에 비하여 시간이 넉넉했던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에서는 유난히 시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논술 가이드북에 있는 논술 기출 문제 등을 통해 혼자 연습하면서 시간 계산을 미리 하고, 뒤에 남은 시간을 미리 생각하여 문제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안배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핵심어를 눈으로 훑으며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읽을 때는 그것을 중심으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는 연습이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와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Q.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보통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고 지겨운 글을 보고 그보다도 더 재미없는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논술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논술 역시 다른 공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논술을 준비하며 읽은 많은 지문과 문제가 제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논술을 단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글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이나 문제에 겁먹어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또, 평소에 많은 글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지문이나 신문 기사도 좋고, 소설이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글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외우거나 공부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글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면 당연하게도 글과 친해지게 되고, 논술에 있어서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읽는 능력은 논술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중요한 능력이니, 논술을 기회로 삼아 그 능력을 마음껏 성장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 시험 시작 전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해요.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문제지를 받으면 반드시 첫 장의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세요.
* 문제지는 감독위원의 시험 시작 지시가 있을 때까지 펼쳐지 말고 대기하여야 해요.

- 인문사회계열 I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 (서명)



CHUNG-ANG UNIVERSITY

-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답안은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해요. 수정액, 수정테이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해야 하므로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띄어쓰기 포함)을 지키세요.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해야 해요(단, 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답안의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문단은 나누지 마세요.

답안 작성의 올바른 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생활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난개발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깨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족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급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평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산업화, 산업화, 외세 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답안 작성의 잘못된 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생활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난개발된 모습에 고향이 타락했다는 깨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족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급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평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산업화, 산업화, 외세 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고, 답안지에는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적지 마세요.
-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는 답안지 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3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38

2. 2023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50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3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럽지 않겠지만 서방님이 이 지경이니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는데 설마 네가 죽겠느냐?”

춘향이 서럽고 답답하여 멍하니 앉았다가 저희 모친을 불러 하소연을 한다.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린들 나와 같이 기다렸으랴.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해 주오.”

이번에는 도련님의 손을 쥐고 유언하듯 당부한다.

“서방님 선산밭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 춘향지묘’라고 여덟 자만 새겨 주오.”

춘향은 어두침침한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를 생각하니 탄식과 눈물이 절로 나왔다.

[중간부분의 줄거리] 걸인 행색을 한 이몽룡은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난 다음 날, 암행어사로 출두한다.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죄를 묻은 후에 죄 없는 자들을 풀어 줄 때,

“저 계집은 무엇인고?”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가에서 포악을 떤 죄로 옥중에 있사옵니다.”

“무슨 죄인고?”

“본관 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키다면서 사또 명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이로소이다.”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푸른 솔 푸른 대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 주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황급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향단을 찾는다.

“향단아, 서방님 혹시 어디 계신가 살펴보아라. 어젯밤 오셨을 때 천만 당부하였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도 모르시는가? 어서 찾아보아라.”

어사또 다시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하시기에 춘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 있었다. 춘향은 웃음 반 울음 반으로,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읍에 가을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봄바람에 핀 오얏꽃이 날 살리네. 꿈이나 생시냐? 꿈이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이렇게 즐길 적에 뒤늦게 달려온 춘향 모도 어깨춤을 추고, 구경 왔던 남원 고을 백성들도 얼씨구 덩실춤을 추었다.

(나) 한 달이 지나자 불에 덴 병아리는 엉거주춤 서서 뻘뻘뻘 걷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 불에 덴 병아리 이름이 ‘뻘뻘’이 된 것이다. 뻘뻘이는 벌거숭이였다. 솜털이 모두 타 버려 알몸뚱이가 되었고 살갗은 푸르뎡뎡한 게 보기 흉했다. 그보다 털이 없으니 뻘뻘이는 추워서 항시 바들바들 떨었다. 순진이네 어머니는 어느 날, 조그만 형겅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렇게 뻘뻘이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조롱박 모이 그릇과 깡통 물그릇을 따로 가지고 순진이네 가족이 되어 버렸다.

뻘뻘이는 사람으로 치면 늦둥이다. 오래도록 병아리처럼 “뻘뻘뻘” 울었다. 턱주배기 새끼 수탉은 벌써 커다란 장닭이 되었다. 새벽이면 화를 치며 힘차게 “꼬끼요요!” 울었다.

“엄마, 뻘뻘이는 왜 아직 큰 소리로 울지 않을까? 이젠 뉘이 저만큼 자라고 몸뚱이도 큰데…….”

“뻘뻘이는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잖니?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아주 늦은 거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순금이도, 모두 뻘뻘이가 다른 수탉처럼 크게 화를 치며 울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뻘뻘이는 덩치가 커지면서 자꾸 사립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뻘뻘뻘, 뻘뻘뻘 기어가듯이 나갔다가는 이웃집 수탉에게 쫓겨 죽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오곤 했다. 머리 꼭대기에서 피가 조금 나고 등어리의 깃털이 한두 개쯤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크게 다치지 않아서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뻘뻘이는 건넌집 개한테 물려 한쪽 날개를 크게 다쳐 버렸다. 뻘뻘이는 다시 소쿠리에 담겨 방 안 윗목 구석에서 퍼드러져 있어야 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다음 날은 엷드린 채 물도 먹고 모이도 먹었다. 닳새쯤 지나자 뻘뻘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한쪽 날개가 처진 채 오므라들지 않았다. 결국 뻘뻘이의 날개는 짹짹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영원히 뻘뻘이는 두 날개로 화를 치며 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뻘뻘이가 겨우 서툴게 씨아*가 돌아가는 가락처럼 운 것은 겨울을 지내고 나서였다. 태어나서 한 돌이 되어서다. 두 날개를 엉거주춤 치켜들고 목을 늘이면서 “꼬르륵” 하면서 울면 순진이네 식구들은 한바탕 웃었다. 뻘뻘이도 닭이기 때문에 서툴지만 제구실을 하게 된 것은 사람처럼 똑같이 훌륭하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씨아 :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다) [앞부분의 줄거리]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하나코(본명 장진자)이다. 하나코는 ‘그’와 그의 동창들을 모임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기도 했다. 하나코는 언제나 차별 없이 그들을 대했다.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를 포함한 일곱 명은 함께 사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낙동강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일곱 시간 이상을 달려온 후라 이야깃거리가 고갈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아니 악을 써댔다. 돌아가면서 돼지 먹따는 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 당혹감을 숨기고 앉아, 조용히 술잔을 비우는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에게 그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노래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하나코가 그런 자리에서 노래라면 질색한다는 정도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

있고 실제로 그녀는 노래 같은 것은 뺄점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담 반, 협박 반 노래를 요구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코의 이름을 외쳐댔다. 그래도 하나코는 웬일인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또한 조금은 변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벌떡 일어섰다. 부르나 안 부르나 내기하자면서 하나코에게 다가갔다. 동시에 하나코 건너편의 누군가가 그녀를 일으키느라 팔을 위로 잡아당겼고 그녀의 친구는 하나코를 거머쥔 그 손을 떼어놓으려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중략]

얼마 전부터 일으켜 세워진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뒤로 올려진 하나코의 머리는 볼품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그런 몰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모두를 감염시켜서 조금씩 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광란의 웃음이 되었다. 일종의 벌을 받고 있던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에게까지 퍼져, 그녀들 또한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아주 찡그려진 표정의 웃음이었다.

하나코와 그 친구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벗어 놓은 외투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한밤중의 역겨운 찬바람을 방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방문을 열었고, 이미 그 사이 몇 배로 두터워진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누군가, 그녀들이 인가를 찾을 때까지, 혹은 대로에 나설 때까지는 오래 어둠 속을 걸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코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임에서 사라졌다.

(라) [앞부분의 줄거리]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나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축이군.

감독관 (책상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들다 교수 허리에 감아 준다.

처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쪽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쏙어 넣는다. 그리고

처 삼백 환!

재빨리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처 육백 환! (이어) 구백 환!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처 왜 그러세요?

교수 참 신기한 일이야.

처 삼천 환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교수 이 원고지 말이오. 다 이백 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백구십 자 칸밖에 안 들었어. 열 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해.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마)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꼼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덜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 명준은 애인인 윤애를 남긴 채 월북하지만,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한다. 명준은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좌절된다.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준은 간호 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중립국.”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중략]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지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중략]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꼴호즈 : 콜호스. 소련의 집단 농장.

(사)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뽀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찢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별쥬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중략]

생활의 짐은 한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 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 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 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트를 늘려 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질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아)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이 많지만 ‘마녀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 마녀, 마녀 집회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차츰 정형화되어 갔으며, 그리고 실제 마녀가 존재할 리는 없으므로 권력 당국(정부와 종교)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마녀사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마녀사냥을 중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근대 초의 현상이다. 마녀사냥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점은 1590년대이며, 그 후 1630년대와 1660년대에 다시 정점에 올랐다. 다시 말해, 근대 유럽에서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희생되었는가? 희생자들은 대개 여성, 빈민, 노인으로,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여긴 부류들이었다.

지금까지 말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마녀사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자.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며, 종교의 신임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자)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

능성이 커진다.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 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이 글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 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에 나타난 남북한 ‘설득자’의 종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마녀사냥’이 근대 초기에 등장한 이유를 찾아 서술하고, ‘마녀사냥’의 방식과 그 결과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20점, 330-350자]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작자 미상, 「춘향전」, 정민 외 26인, 『국어』, 해냄에듀, 2017, 250-261쪽.
- 제시문 (나) 권정생, 「뽕뽕기」, 최원식 외 13인, 『문학』, 창비, 2018, 35-46쪽.
- 제시문 (다) 최윤, 「하나코는 없다」, 김동환 외 6인, 『국어』, 교학사, 2018, 71-83쪽.
- 제시문 (라) 이근삼, 「원고지」,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8, 256-263쪽.
- 제시문 (마) 박지원, 「상기」, 민현식 외 12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7, 142-146쪽.
- 제시문 (바) 최인훈, 「광장」,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8, 262-267쪽.
- 제시문 (사) 나희덕, 「내 유년의 율타리는 탕자나무였다」, 이삼형 외 7인, 『국어』, 지학사, 2017, 242-244쪽.
- 제시문 (아) 주경철, 「우리 안의 마녀사냥」, 이삼형 외 5인, 『독서』, 지학사, 2018, 118-122쪽.
- 제시문 (자) 이은희,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방민호 외 5인, 『독서』, 미래엔, 2018, 176-181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7)에 실린 작자미상의 「춘향전」이라는 고전문학의 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수록했다. 이 작품은 ‘우리문학의 숨과 결’ 단원 중 ‘이야기 문학이 걸어온 길’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이야기 문학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한국 이야기 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며,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춘향이 남편 부사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여 옥에 갇힌 후, 걸인 행색의 이몽룡이 찾아오는 장면과 어사 출두 이후 춘향과 이몽룡이 해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춘향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가,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알고 안도하는 웃음을 짓는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8)에 실린 권정생의 「뽕뽕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본질’ 단원 중 ‘문학은 나의 힘’에 실린 아동문학 작품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학의 자발적 향유의 중요성을 알고,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뽕뽕기」는 어려서 아궁이에 빠져 화상을 입고 연거푸 큰 고난을 겪은 수탉 「뽕뽕기」와 이를 돌봐주는 순진이네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제시문 (나)는 순진이네 가족이 「뽕뽕기」가 서툴게나마 우는 모습을 보고, 수탉으로서 구실을 하게 되었다면 대견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교학사, 2018)에 실린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의 일부와 교과서에서 줄거리가 요약되어 제시된 부분을 소설 원문에서 가져와 출제되도록 맞게 일부 편집하였다. 이 작품은 ‘문학의 멋을 향유하다’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서사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와 그들로 지칭되는 남성들과 함께 떠난 낙동강으로 여행 도중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다. 하나코에게 노래를 강요하며 광란의 웃음을 빠져드는 ‘그들’과 곤란한 상황에서 억지웃음을 짓는 하나코와 친구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수록된 이근삼의 「원고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작품을 감상하며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감상하고 희곡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번역일을 하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교수의 삶을 통해 혼돈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는 백구십 자 칸밖에 없는 원고지를 발견하고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정열의 모습을 떠올리고 삶의 굴레에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7)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의 글 「상기(象記)」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산문은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단원의 ‘(4) 교술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 봄으로써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시문 (마)는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를 본 경험에서 느낀 놀라움과 기이함 등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치에 입각해 선입견을 갖고 획일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팽배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경험에서 받은 느낌과 성찰한 점을 표현하고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8)에 실린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일부이다. 이 글은 ‘4. 한국 문학의 역사’ 단원의 ‘(4) 광복 이후의 문학’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광복 이후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형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하며, 광복 이후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을 그려낸 1960년대 소설이다.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살펴보고, 분단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닌 인물을 그려낸 작품을 통해 이념 갈등에 의한 분단 문제를 비롯해 개인의 삶의 아픔과 상처의 치유 및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과 노력 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나희덕의 「내 유년의 율타리는 탕자나무였다」의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6. 문학 너머로’ 단원 중 ‘(2)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에 자주 접하던 ‘탱자나무’라는 소재를 이용해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일상의 경험이나 소재로부터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 주목하여, 탱자나무 가시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가시’와 같은 고통이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깨달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2018) 교과서에 실린 「우리 안의 마녀사냥」을 출제의도에 맞게 일부 발췌했다. 이 제시문은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마녀사냥’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마녀사냥이 일어난 시기와 대상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녀사냥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평가한다. 저자는 마녀사냥을 근대 초기에 일반 민중들이 갖게 된 정치적, 종교적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억압하려는 권력층의 의도가 담긴 현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현상에 담긴 집단적 광기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글을 통해 마녀사냥의 작동방식과 결과를 근대의 역사적 배경과 권력층의 의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이 글에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다윈이 말한 것이 아니며, 다윈은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시문에서는, 생명체의 변화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자만이 선택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 선택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 강자와 약자모두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다윈 진화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인물이 웃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의 춘향은 자신을 핍박하는 관리인 줄 알았던 어사또가 이몽룡임을 알게 된 순간 웃게 된다. 감동의 눈물과 뒤섞인 이 웃음에는 긴 고난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루어진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다. (나)의 식구들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성장한 빼떼기가 마침내 “꼬르륵” 우는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는다. 이 웃음에는 어설피지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빼떼기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이 담겨 있다. (다)의 하나코는 자신을 향한 광기어린 집단적 웃음과 맞닥뜨려 마지못해 억지 웃음을 짓는다. 이 쓴웃음에는 강압적인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폭력성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 (라)의 교수는 규격을 벗어난 백구집 자 원고지를 발견하여 미소를 짓는다. 이 웃음에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기계적 삶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쾌감과 잊고 있던 열정과 희망을 떠올리게 된 기쁨이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중심인물은 반전, 성장의 발견, 불가항력적 상황, 예외성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웃고, 이 웃음에는 환희, 기쁨, 모멸감, 해방감이 내포되어 있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에 나타난 남북한 ‘설득자’의 종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을 (라)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의 화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 혹은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마치 전부를 다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즉, 자신의 고정관념으로만 선불리 대상을 재단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피력하면서 확립적 가치와 고정된 시각에 기반한 인식을 넘어선 열린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마)의 논지를 토대로 보자면, 명준을 심사하는 남북한 설득자들은 공통적으로 종립국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불변의 기준 아래 종립국의 실체를 단정하고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한편 (바)의 ‘명준’이 종립국에서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기력한 생활과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라)의 교수가 갈망했던 것처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상처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사)의 ‘나’와 같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담담히 그것을 포용함으로써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상처의 아픔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566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마녀사냥’이 근대 초기에 등장한 이유를 찾아 서술하고, ‘마녀사냥’의 방식과 그 결과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20점, 330-350자]

(아)의 마녀사냥은 근대 초기에 증가한 민중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억압하려는 권력층의 의도가 반영된 현상이다. 권력층은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존재들을 제거하고 국가와 종교에 저항 없이 복종하는 균질한 집단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을 이용했다. (자)의 논지에 따르면 생물체의 생존은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선택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마녀사냥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어 문제가 있다. 또한 (자)에 따르면 자연선택의 결과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확보인 것에 비해 마녀사냥은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345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감정'을 각각 정확하게 찾아내어 기술했는지 평가한다.(32점 만점)

(가) **계기**: 춘향이 자신을 핍박하는 관리인 줄 알았던 어사또가 이몽룡임을 알게 된 것(4점)

감정: 긴 고난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진정한 사랑이 이뤄졌다는 감격(4점)

(나) **계기**: 갓은 고초를 겪으면서 성장한 빼빼기가 마침내 "고르륵" 우는 모습(4점)

감정: 어설피지만 수탈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빼빼기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4점)

(다) **계기**: 하나코가 자신을 향한 광기 어린 집단적 웃음과 맞닥뜨려 마지못해 짓는 억지웃음(4점)

감정: 강압적인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폭력성에 대한 분노(4점)

(라) **계기**: 규격을 벗어난 백구십 자 원고지를 발견한 것(4점)

감정: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기계적 삶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쾌감과 열정과 희망을 떠올리게 된 기쁨(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웃음에 담긴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① 웃는 계기에 대한 핵심적 표현: 반전, 성장의 발견, 불가항력적인 상황, 예외성

②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에 대한 핵심적 표현: 환희, 기특함, 모멸감, 해방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0점+2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남북한 '설득자'의 중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는지 평가한다.(20점 만점): 3~20점 부여

- ① (마)의 논지 파악: 제시문 (마)는 선입견을 갖고 획일적으로 사고하여 선불리 대상을 재단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고정된 시각을 넘어 열린 관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10점)
② 중립국 인식 비판: 제시문 (바)는 명준을 심사하는 설득자들이 공통적으로 중립국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음. 중립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 실체를 예단하는 설득자들의 인식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함(10점)

- 제시문 (마)의 논지와 제시문 (바)의 중립국 인식 비판을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정확히 서술했으나 (바)의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의 비판 내용의 일부만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2)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각각 활용하여 논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0점 만점): 3~20점

- ① 제시문 (라)의 활용: 무기력한 생활과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라)의 '교수'가 갈망했던 것처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되살릴 필요가 있음을 서술해야 함(10점)
② 제시문 (사)의 활용: 자신의 상처로부터 도피하기보다 (사)의 '나'처럼 그러한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여 자신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상처를 통한 아픔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해야 함(10점)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모두 활용하여 명준이 참고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활용하였으나 둘 중 하나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각각 활용하지 않고 대략적인 유사점만 중심으로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남북한 '설득자'의 중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의 비판 내용의 일부만 서술했을 경우	3~8점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정확히 서술했으나 (바)의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마)의 논지와 (바)의 중립국 인식 비판을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5~20점
	②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각각 활용하여 논술하고 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각각 활용하지 않고 대략적인 유사점만 중심으로 서술했을 경우	3~8점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활용하였으나 둘 중 하나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모두 활용하여 명준이 참고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8점+12점)

1) 제시문 (아)에서 ‘마녀사냥’이 근대 초기에 등장한 핵심적 이유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8점 만점): 4~8점 부여

- ①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등장 배경을 민중과 권력층의 관계에서 파악하여 제시해야 함: 근대 초기에 증가한 민중의 에너지를 억압하려는 권력층의 의도가 반영된 현상
② 제시문 (아)에서 권력층이 마녀사냥을 활용한 의도를 중심으로 등장배경으로 제시해야 함: 권력층이 국가와 종교에 복종하는 균질한 집단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을 이용했다는 점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서술해야 함

- 제시문 (아)에서 마녀사냥의 등장 배경을 민중과 권력층의 관계와 권력층의 의도 측면에서 모두 제시한 경우, 8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 마녀사냥의 등장 배경을 민중과 권력층의 관계 또는 권력층의 의도 측면 중 하나로만 설명한 경우, 4점 부여

2)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방식과 결과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해야 한다.(12점 만점): 6~12점

- ①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작동방식을 생물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토대로 비판: 제시문(자)에서 생물체의 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선택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②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결과를 자연선택의 결과 나타나는 공존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비판: 제시문(자)에서 자연선택의 결과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다양성이 확보되지만,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은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방식과 결과를 생물체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과 그 결과 확보되는 다양성과 공존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비판한 경우, 8~12점
-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방식과 결과 중 하나만 제시문 (자)를 통해 비판한 경우 또는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방식과 결과를 제시문 (자)의 방식과 결과 중 하나만 사용하여 비판한 경우, 4~6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4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4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등장배경을 민중과 권력층의 관계 그리고 권력층의 의도 측면에서 모두 파악했는지 평가(8점): 3~8점 부여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등장배경을 민중과 권력층의 관계 혹은 권력층의 의도 중 하나로만 파악한 경우	3~4점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등장배경을 민중과 권력층의 관계 그리고 권력층의 의도로 모두 파악한 경우	7~8점
	② 제시문 마녀사냥’의 방식과 결과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했는지평가 (12점): 6~12점 부여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작동방식과 결과 중 한 가지만 제시문 (자)를 토대로 비판하거나,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작동방식과 결과를 제시문 (자)의 적응방식과 결과 중 하나로만 사용하여 비판한 경우	4~6점
		제시문 (아)의 마녀사냥의 작동방식과 결과를 제시문 (자)의 생물체의 적응방식과 그 결과 확보되는 다양성 측면으로 적절하게 비판한 경우	8~12점

2. 2023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럽지 않겠지만 서방님이 이 지경이니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는데 설마 네가 죽겠느냐?”
춘향이 서럽고 답답하여 멍하니 앉았다가 저희 모친을 불러 하소연을 한다.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린들 나와 같이 기다렸으랴.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해 주오.”
이번에는 도련님의 손을 쥐고 유언하듯 당부한다.
“서방님 선산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 춘향지묘’라고 여덟 자만 새겨 주오.”
춘향은 어두침침한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를 생각하니 탄식과 눈물이 절로 나왔다.
[중간부분의 줄거리] 절인 행색을 한 이몽룡은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난 다음 날, 암행어사로 출두한다.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죄를 묻은 후에 죄 없는 자들을 풀어 줄 때,
“저 계집은 무엇인고?”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가에서 포악을 떤 죄로 옥중에 있사옵니다.”
“무슨 죄인고?”
“본관 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면서 사또 명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이로소이다.”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푸른 솔 푸른 대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 주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황급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향단을 찾는다.
“향단아, 서방님 혹시 어디 계신가 살펴보아라. 어젯밤 오셨을 때 천만 당부하였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도 모르시는가? 어서 찾아보아라.”
어사또 다시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하시기에 춘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 있었다. 춘향은 웃음 반 울음 반으로,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읍에 가을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봄바람에 핀 오얏꽃이 날 살리네. 꿈이나 생시냐? 꿈이 깼까 염려로다.”
한참 이렇게 즐길 적에 뒤늦게 달려온 춘향 모도 어깨춤을 추고, 구경 왔던 남원 고을 백성들도 얼씨구 덩실춤을 추었다.

(나) 한 달이 지나자 불에 덴 병아리는 엉거주춤 서서 뻘뻘 걷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 불에 덴 병아리 이름

이 ‘빠떼기’가 된 것이다. 빠떼기는 별거숭이였다. 솜털이 모두 타 버려 알몸뚱이가 되었고 살갗은 푸르텡텡한 게 보기 흉했다. 그보다 털이 없으니 빠떼기는 추워서 항시 바들바들 떨었다. 순진이네 어머니는 어느 날, 조그만 형겅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렇게 빠떼기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조롱박 모이 그릇과 깡통 물그릇을 따로 가지고 순진이네 가족이 되어 버렸다.

빠떼기는 사람으로 치면 늦둥이다. 오래도록 병아리처럼 “삐악삐악.” 울었다. 턱주배기 새끼 수탉은 벌써 커다란 장닭이 되었다. 새벽이면 화를 치며 힘차게 “꼬끼오요!” 울었다.

“엄마, 빠떼기는 왜 아직 큰 소리로 울지 않을까? 이젠 뉘이 저만큼 자라고 몸뚱이도 큰데…….”

“빠떼기는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잖니?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아주 늦은 거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순금이도, 모두 빠떼기가 다른 수탉처럼 크게 화를 치며 울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빠떼기는 덩치가 커지면서 자꾸 사립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빠뚫빠뚫, 빠딱빠딱 기어가듯이 나갔다가는 이웃집 수탉에게 쫓겨 죽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오곤 했다. 머리 꼭대기에서 피가 조금 나고 등어리의 깃털이 한두 개쯤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크게 다치지 않아서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빠떼기는 건넌집 개한테 물려 한쪽 날개를 크게 다쳐 버렸다. 빠떼기는 다시 소쿠리에 담겨 방 안 윗목 구석에서 퍼드러져 있어야 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다음 날은 엷드린 채 물도 먹고 모이도 먹었다. 닳새쯤 지나자 빠떼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한쪽 날개가 처진 채 오므라들지 않았다. 결국 빠떼기의 날개는 짹짹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영원히 빠떼기는 두 날개로 화를 치며 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빠떼기가 겨우 서툴게 씨아*가 돌아가는 가락처럼 운 것은 겨울을 지내고 나서였다. 태어나서 한 돌이 되어서다. 두 날개를 엉거주춤 치켜들고 목을 늘이면서 “꼬르륵.” 하면서 울면 순진이네 식구들은 한바탕 웃었다. 빠떼기도 닭이기 때문에 서툴지만 제구실을 하게 된 것은 사람처럼 똑같이 훌륭하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씨아 :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다) [앞부분의 줄거리]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하나코(본명 장진자)이다. 하나코는 ‘그’와 그의 동창들을 모임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기도 했다. 하나코는 언제나 차별 없이 그들을 대했다.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를 포함한 일곱 명은 함께 사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낙동강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일곱 시간 이상을 달려온 후라 이야깃거리가 고갈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아니 악을 써댔다. 돌아가면서 돼지 먹따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 당혹감을 숨기고 앉아, 조용히 술잔을 비우는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에게 그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노래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하나코가 그런 자리에서 노래라면 질색한다는 정도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녀는 노래 같은 것은 빵점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담 반, 협박 반 노래를 요구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코의 이름을 외쳐댔다. 그래도 하나코는 웬일인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또 한 조금은 변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벌떡 일어섰다. 부르나 안 부르나 내기하자면서 하나코에게 다가갔다. 동시에 하나코 건너편의 누군가가 그녀를 일으키느라 팔을 위로 잡아당겼고 그녀의 친구는 하나코를 거머쥔 그 손을 떼어놓으려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중략]

얼마 전부터 일으켜 세워진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뒤로 올려진 하나코의 머리는 볼품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그런 물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모두를 감염시켜서 조금씩 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광란의 웃음이 되었다. 일종의 별을 받고 있던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에게까지 퍼져, 그녀들 또한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아주 쩡그려진 표정의 웃음이었다.

하나코와 그 친구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벗어 놓은 외투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한밤중의 역겨운 찬 바람을 방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방문을 열었고, 이미 그 사이 몇 배로 두터워진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누구 나가, 그녀들이 인가를 찾을 때까지, 혹은 대로에 나설 때까지는 오래 어둠 속을 걸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코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임에서 사라졌다.

(라) [앞부분의 줄거리]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나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아 준다.

처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쪽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쏙어 넣는다. 그리고

처 삼백 환!

재빨리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처 육백 환! (이어) 구백 환!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처 왜 그러세요?

교수 참 신기한 일이야.

처 삼천 환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교수 이 원고지 말이오. 다 이백 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백구십 자 칸밖에 안 들었어. 열 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해.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앓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마)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사람들은 “빨이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덜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 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 명준은 애인인 윤애를 남긴 채 월북하지만,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한다. 명준은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좌절된다.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준은 간호 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중립국.”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중략]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지만 막연한 얘지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대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중략]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꼴호즈 : 꼴호스. 소련의 집단 농장.

(사)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찢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별칭 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몇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찢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중략]

생활의 짐은 한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찢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찢러 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 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 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트를 늘려 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질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에 나타난 남북한 ‘설득자’의 종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한 단체에서 웃음과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한 후,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게임을 실시하여 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한 번 시행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시행은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 첫 번째 시행에서 선택된 공에 적힌 수를 a 라 하면, a^2 만 원의 상금이 적립된다.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꺼낸 공과 같은 숫자가 적힌 새로운 공 하나를 주머니에 추가로 넣어준다.
- 두 번째 시행 여부는 참가자가 선택한다. 두 번째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게임은 종료되며,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만 지급된다.
- 두 번째 시행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시행에서 선택된 공에 적힌 수를 b 라 하자. 이때, $b \leq a$ 인 경우에는 b^2 만 원의 상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과 함께 최종 지급된다. 하지만, $b > a$ 인 경우에는 상금이 추가로 적립되지 않으며,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 3] 위 게임에서 첫 번째 시행만 하는 경우의 상금의 기댓값과 두 번째 시행까지 하는 경우의 상금의 기댓값을 각각 계산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제시문 (가) 작자 미상, 『춘향전』, 정민 외 26인, 『국어』, 해냄에듀, 2017, 250-261쪽.
- 제시문 (나) 권정생, 『빼빼기』, 최원식 외 13인, 『문학』, 창비, 2018, 35-46쪽.
- 제시문 (다) 최윤, 『하나코는 없다』, 김동환 외 6인, 『국어』, 교학사, 2018, 71-83쪽.
- 제시문 (라) 이근삼, 『원고지』,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8, 256-263쪽.
- 제시문 (마) 박지원, 『상기』, 민현식 외 12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7, 142-146쪽.
- 제시문 (바) 최인훈, 『광장』,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8, 262-267쪽.
- 제시문 (사) 나희덕, 『내 유년의 율타리는 탕자나무였다』, 이삼형 외 7인, 『국어』, 지학사, 2017, 242-244쪽.
- 문제 3 출전
 -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5인, 2020, pp. 84-90)
 -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미래엔, 황선욱 외 9인, 2020, pp. 86-91)
 -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교학사, 권오남 외 14인, 2020, pp. 89-95)
 -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금성출판사, 배종숙 외 6인, 2020, pp. 99-103)
 -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천재교육, 이준열 외 7인, 2020, pp. 91-97)
 -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동아출판사, 박교식 외 19인, 2020, pp. 87-92)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7)에 실린 작자미상의 『춘향전』이라는 고전문학의 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수록했다. 이 작품은 ‘우리문학의 숨과 결’ 단위 중 ‘이야기 문학이 걸어온 길’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이야기 문학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한국 이야기 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며,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춘향이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여 옥에 갇힌 후, 걸인 행색의 이몽룡이 찾아오는 장면과 여사 출두 이후 춘향과 이몽룡이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춘향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가,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알고 안도하는 웃음을 짓는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8)에 실린 권정생의 『빼빼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본질’ 단위 중 ‘문학은 나의 힘’에 실린 아동문학 작품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학의 자발적 향유의 중요성을 알고,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빼빼기』는 어려서 아궁이에 빠져 화상을 입고 연가푸 큰 난관을 겪은 수탉 ‘빼빼기’와 이를 돌봐주는 순진이네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제시문 (나)는 순진이네 가족이 ‘빼빼기’가 서늘게나마 우는 모습을 보고, 수탉으로서 구실을 하게 되었다면 대견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교학사, 2018)에 실린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의 일부와 교과서에서 줄거리가 요약되어 제시된 부분을 소설 원문에서 가져와 출제되도록 맞게 일부 편집하였다. 이 작품은 ‘문학의 멋을 향유하다’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서사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와 그들로 치장되는 남성들과 함께 떠난 낙동강으로 여행 도중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다. 하나코에게 노래를 강요하며 광란의 웃음을 빼져드는 ‘그들’과 곤란한 상황에서 억지웃음을 짓는 하나코와 친구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수록된 이근삼의 『원고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작품을 감상하며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감상하고 희곡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번역일을 하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교수의 삶을 통해 혼돈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는 백구십 자 칸밖에 없는 원고지를 발견하고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정열의 모습을 떠올리고 삶의 굴레에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7)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의 글 『상기(象記)』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산문은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단원의 ‘(4) 교술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 봄으로써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시문 (마)는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를 본 경험에서 느낀 놀라움과 기이함 등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치에 입각해 선입견을 갖고 획일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팽배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경험에서 받은 느낌과 성찰한 점을 표현하고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8)에 실린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일부이다. 이 글은 ‘4. 한국 문학의 역사’ 단원의 ‘(4) 광복 이후의 문학’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광복 이후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한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하며, 광복 이후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을 그려낸 1960년대 소설이다.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살펴보고, 분단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닌 인물을 그려낸 작품을 통해 이념 갈등에 의한 분단 문제를 비롯해 개인의 삶의 아픔과 상처의 치유 및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과 노력 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나희덕의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의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6. 문학 너머로’ 단원 중 ‘(2)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에 자주 접하던 ‘탱자나무’라는 소재를 이용해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일상의 경험이나 소재로부터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 주목하여, 탱자나무 가시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가시’와 같은 고통이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깨달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인물이 웃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의 춘향은 자신을 핍박하는 관리인 줄 알았던 어사또가 이몽룡임을 알게 된 순간 웃게 된다. 감동의 눈물과 뒤섞인 이 웃음에는 긴 고난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루어진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다. (나)의 식구들은 갓은 고초를 겪으면서 성장한 빼빼기가 마침내 “꼬르륵” 우는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는다. 이 웃음에는 어설피지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빼빼기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이 담겨 있다. (다)의 하나코는 자신을 향한 광기어린 집단적 웃음과 맞닥뜨려 마지못해 억지 웃음을 짓는다. 이 쓴웃음에는 강압적인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폭력성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 (라)의 교수는 규격을 벗어난 백구십 자 원고지를 발견하여 미소를 짓는다. 이 웃음에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기계적 삶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쾌감과 잊고 있던 열정과 희망을 떠올리게 된 기쁨이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중심인물은 반전, 성장의 발견, 불가항력적 상황, 예외성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웃고, 이 웃음에는 환희, 기쁨, 모멸감, 해방감이 내포되어 있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에 나타난 남북한 ‘설득자’의 중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을 (라)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의 화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 혹은 일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마치 전부를 다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즉, 자신의 고정관념으로만 선불리 대상을 재단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피력하면서 확립적 가치와 고정된 시각에 기반한 인식을 넘어서 열린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마)의 논지를 토대로 보자면, 명준을 심사하는 남북한 설득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립국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불변의 기준 아래 중립국의 실체를 단정하고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한편 (바)의 ‘명준’이 중립국에서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기력한 생활과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라)의 교수가 갈망했던 것처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상처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사)의 ‘나’와 같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담담히 그것을 포용함으로써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상처의 아픔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566자)

[문제 3 예시답안]

- 첫 번째 시행만 하는 경우, 상금 기댓값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frac{1}{4}(1^2+2^2+3^2+4^2)=7.5\text{만 원}$$

- 두 번째 시행까지 하는 경우, 상금을 받는 경우와 그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바구니 공	상금 기댓값
$a=4$	$b=4$	{1, 2, 3, 4, 4}	$\frac{1}{4} \frac{2}{5}(4^2+4^2)$
	$b=3$		$\frac{1}{4} \frac{1}{5}(4^2+3^2)$
	$b=2$		$\frac{1}{4} \frac{1}{5}(4^2+2^2)$
	$b=1$		$\frac{1}{4} \frac{1}{5}(4^2+1^2)$
$a=3$	$b=3$	{1, 2, 3, 3, 4}	$\frac{1}{4} \frac{2}{5}(3^2+3^2)$
	$b=2$		$\frac{1}{4} \frac{1}{5}(3^2+2^2)$
	$b=1$		$\frac{1}{4} \frac{1}{5}(3^2+1^2)$
$a=2$	$b=2$	{1, 2, 2, 3, 4}	$\frac{1}{4} \frac{2}{5}(2^2+2^2)$
	$b=1$		$\frac{1}{4} \frac{1}{5}(2^2+1^2)$
$a=1$	$b=1$	{1, 1, 2, 3, 4}	$\frac{1}{4} \frac{2}{5}(1^2+1^2)$

위의 상금 기댓값을 모두 더하면, 두 번째 시행까지 하는 경우의 상금 기댓값은 10.5만 원이 된다.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감정'을 각각 정확하게 찾아내어 기술했는지 평가한다.(32점 만점)

(가) **계기**: 춘향이 자신을 핍박하는 관리인 줄 알았던 어사또가 이몽룡임을 알게 된 것(4점)

감정: 긴 고난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진정한 사랑이 이뤄졌다는 감격(4점)

(나) **계기**: 갓은 고초를 겪으면서 성장한 빼떼기가 마침내 "고르륵" 우는 모습(4점)

감정: 어설피지만 수탈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빼떼기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4점)

(다) **계기**: 하나코가 자신을 향한 광기어린 집단적 웃음과 맞닥뜨려 마치 못해 짓는 억지 웃음(4점)

감정: 강압적인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폭력성에 대한 분노(4점)

(라) **계기**: 규격을 벗어난 백구십 자 원고지를 발견한 것(4점)

감정: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기계적 삶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쾌감과 열정과 희망을 떠올리게 된 기쁨(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웃음에 담긴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① 웃는 계기에 대한 핵심적 표현: 반전, 성장의 발견, 불가항력적인 상황, 예외성

②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에 대한 핵심적 표현: 환희, 기특함, 모멸감, 해방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0점+2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남북한 '설득자'의 중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는지 평가한다.(20점 만점): 3~20점 부여

- ① (마)의 논지 파악: 제시문 (마)는 선입견을 갖고 획일적으로 사고하여 선불리 대상을 재단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고정된 시각을 넘어 열린 관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10점)
② 중립국 인식 비판: 제시문 (바)는 명준을 심사하는 설득자들이 공통적으로 중립국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음. 중립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 실체를 예단하는 설득자들의 인식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함(10점)

- 제시문 (마)의 논지와 제시문 (바)의 중립국 인식 비판을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정확히 서술했으나 (바)의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의 비판 내용의 일부만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2)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각각 활용하여 논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0점 만점): 3~20점

- ① 제시문 (라)의 활용: 무기력한 생활과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라)의 '교수'가 갈망했던 것처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되살릴 필요가 있음을 서술해야 함(10점)
② 제시문 (사)의 활용: 자신의 상처로부터 도피하기보다 (사)의 '나'처럼 그러한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여 자신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상처를 통한 아픔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해야 함(10점)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모두 활용하여 명준이 참고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활용하였으나 둘 중 하나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각각 활용하지 않고 대략적인 유사점만 중심으로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남북한 '설득자'의 중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의 비판 내용의 일부만 서술했을 경우	3~8점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정확히 서술했으나 (바)의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마)의 논지와 (바)의 중립국 인식 비판을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5~20점
	②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각각 활용하여 논술하고 있는지 평가(20점): 3~20점 부여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각각 활용하지 않고 대략적인 유사점만 중심으로 서술했을 경우	3~8점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활용하였으나 둘 중 하나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모두 활용하여 명준이 참고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문제 3 출제의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분포와 기댓값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 그 숫자에 따라 상금을 받는 확률적 상황을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3 채점기준]

- 첫 번째 시행에서의 상금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두 번째 시행에서의 10가지 경우를 올바르게 찾은 경우: +5점
- 두 번째 시행에서의 10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10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V.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 1. 인문사회계열 I
- 2. 인문사회계열 II
- 3. 경영경제계열 I
- 4. 경영경제계열 II

063

076

090

10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긴 여름날에 할 일이 없으면 번번이 가서 물고기들이 입을 빼꼼거리며 떼 지어 노는 것을 구경하곤 하였다. 하루는 이웃 사람이 대나무 하나를 잘라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물결 사이에 낚싯줄을 드리우게 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서울에 살아서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굵은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저 이웃 사람이 준 것을 좋게 여겨서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드리웠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한 손님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고 말하기를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낚싯바늘 끝이 너무 굵어 안으로 향하였으니, 물고기가 바늘을 삼키기 쉬우나 뱉기도 어렵지 않다. 반드시 끝을 조금 퍼서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하므로, 내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또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드리웠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또 두 손님이 왔으므로 내가 낚싯바늘을 보여 주고 또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니, 한 손님이 말하기를 “물고기가 조금 잡히는 것이 당연하다. 낚싯바늘을 눌러서 굽힐 적에는 반드시 굽힌 곡선의 끝을 짧게 하여 겨우 찌라기 하나를 끼울 만해야 하는데, 이것은 굽힌 곡선의 끝부분이 너무 길어서 물고기가 삼키려 해도 삼킬 수가 없어서 틀림없이 장차 내뱉게 생겼다.” 하므로, 나는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서 뾰족한 부분을 짧게 한 다음 낚싯대를 한동안 드리웠다.

손님이 말하기를 “법(法)은 여기서 다하였지만 묘리(妙理)는 아직 다하지 못하였다.” 하고는 내 낚싯대를 가져다가 스스로 드리우니, 낚싯줄도 나의 낚싯줄이요 낚싯바늘도 나의 낚싯바늘이요 먹이도 나의 먹이요 앉은 곳도 내가 앉은 자리였으며, 바뀐 것이라고는 단지 낚싯대를 잡은 손일 뿐인데도 낚싯대를 드리우자마자 물고기가 마침내 낚싯바늘을 머금고 올라와서 머리를 나란히 하고 앞을 다투어 올라왔다.

내가 말하기를 “묘리가 이 정도에 이른단 말인가. 이를 또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손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니, 묘리를 어찌 말로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또 이른바 묘리가 아니다.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할 말이 있으니, 그대가 나의 법을 지켜 아침에도 낚싯대를 드리우고 저녁에도 낚싯대를 드리워서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날짜가 쌓이고 달수가 오래되어 익히고 익혀 이루어지면 손이 우선 그 알맞음을 가늠하고 마음이 우선 앎을 터득할 것이다. 내 그대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나는 이에 낚싯대를 던지고 감탄하기를 “손님의 말씀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 도를 미루어 나간다면 어찌 다만 낚시질에 쓸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손님이 이미 떠난 뒤에 그 말을 기록하

여 스스로 살피는 바이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나’는 도시에서 온 남자와 친해지며 사랑을 꿈꾸지만, 남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여자와 사귀는 김새를 보인다.

그는 집에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간 것들을 남자에게 내밀었다.

“무공해 채소예요.”

“무공해고 뭐고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나는 당신에게 이 채소들을 갖다 주기 위해 지난봄 내내 마당을 일구어 텃밭으로 만들었어요. 텃밭을 일구는 동안 손에서 피가 나기도 했죠.”

남자가 조소했다. 그 조소가 순간적으로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무공해 채소뿐이었어요.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심장은 격렬하게 떨려왔지만 나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야, 내가 아무리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산다고 네 눈에 내가 거지로 보이냐? 이거 필요 없으니 가져가. 예잇, 재수 없어.”

나는 남자가 내던진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나의 고추와 상추와 치커리와 가지를 수습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심장은 그보다 더 떨렸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후드득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비에 젖어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도 비에 젖어 걸어오고 있었다. 칠월 같은 밤이다. 남자다.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서 두 사람이다. 정미소 안으로 몸을 숨긴 뒤에야 나는 채소 봉지를 놓친 것을 알았다. 남자들이 정미소 앞에서 딱 멈추었다.

“잠깐만, 이게 뭘까?”

두 남자가 정미소 처마 밑에서 뭔가를 펼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바짝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이건 고추야, 싸부딘. 상추도 있어. 월급날, 소주 마시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어.”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간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로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바보인가 봐 한마디 못 하는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 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

남자들이 노래를 똑 멈추었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싸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간쭈가 다시 노래한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

“싸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싸부딘과 간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정미소를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했다.

“그럴 거야.”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 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구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 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 씨는 여덟 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구,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갔다.

“사모님, 내 뽕아 드린 견적서 좀 쥐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얹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불펜심으로 쿡쿡 찡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뻣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폰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

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써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라) [등장인물] 양희기(35세): XX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 / 김인옥(30세): 담배 공장 포장공 / 최상현(39세): 인옥의 남편 / 정금숙(28세): 간호사

인옥: 선생님…….

희기: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덕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희기: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예요?

희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희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덕의 손처럼…….

인옥: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희기를 찾아온다. 그는 희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희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희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희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희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희기: 누가 말이오?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희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희기: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상현: 뭐라고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यो?

상현: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요! 나 살고 남도 있지!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회기: 정 간호사!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 (마) 칸트의 도덕 법칙을 표현하는 첫 번째 정언 명령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것이다. 칸트는 한 사람이 선택한 준칙을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만약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면, 도덕 법칙의 명령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정언 명령은 또 다른 정언 명령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보편성의 원리에 전제된 인간 존중의 정신을 표현한 정언 명령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며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한 개인이 이처럼 자신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한다면,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의 가치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로부터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라는 정언 명령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중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인격은 수단적 가치를 지닌 사물과 달리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준칙: 자기 자신의 행위 지침으로서 스스로에게 설정하는 규칙을 가리킨다.

- (바) 시(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험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굶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사) 인간의 활동은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고, 둘째, 작업은 인공 세계를 건설하여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자신이 가진 본연의 능력과 개성을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활동이다. 노동은 직(職)에 해당하고 행위가 바로 업(業)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활동은 동물도 하는 걱정이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한다.

(아)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근거하여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자 가장 좋은 것, 즉 최고선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쾌락을 누리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이성의 덕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성이나 지혜가 비록 그 자체로 쾌락은 아니지만, 진정한 쾌락에 이르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고통을 없애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혜를 통해 마음에 불안이 없고 육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학파가 지향한 쾌락주의의 이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평정심의 상태를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불렀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이성을 통해 고통과 쾌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건전한 추론으로써 쾌락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의 지혜를 지닌 사람은 절제, 정의, 우정 등의 덕을 쌓는 삶을 통해 쾌락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의 부정의, 인간관계에서의 불화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삶에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번잡한 세속의 삶을 떠나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지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쾌락 기계(pleasure machine)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순수하고 지속적인 쾌락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잡한 기계 하나를 발명했다. 이 기계에는 사람의 대뇌 피질 영역과 뇌의 다른 부분에 전류를 보내는 전극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매우 강력한 쾌감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이러한 환상적인 느낌을 경험한다. 당신은 그런 기계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 (차) 쾌락은 망해 가는 연속이다. 하나가 생기면 강렬한 자기 느낌이 만족을 선언한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또 다른 쾌락이 겹쳐 올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쾌락이 머무는 동안에는 여전히 쾌락을 갈망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행복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경험이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생각이 전환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인옥과 회기의 대화’에서 나타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제시문 (마)를 근거로 평가하고,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평가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2 인문사회계열 I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깨달음'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깨달음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와 각기 다른 상황과 과정을 통해 도달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비교, 분석,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깨달음이 도덕 법칙, 직업윤리와 연결되는 측면을 텍스트의 논지를 통합하여 도출해 내는 유추적 사고력, 4)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그리고 5)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생각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제시문이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주인공이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 및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을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사상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에 비추어 해석, 비판하는 능력, 2) 직업의 윤리적인 측면을 도출해 내는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결여된 직업적 태도를 분석하여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직업 윤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인공이 지녀야 할 태도를 찾아내야 한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쾌락에 대한 추구 방식을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일관되고 완결된 논리로 쓸 수 있는 능력, 2)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바라 보는 두 개의 시각을 이해하고, 주어진 제시문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남구만, 『조설』, 김동환 외, 『국어』, 교학사, 2021, 109-111쪽.
- 제시문 (나): 공선옥, 『명량한 밤길』,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308-312쪽.
- 제시문 (다):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2021, 53-61쪽.
- 제시문 (라): 차범석, 『성난 기계』, 민현식 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20, 126-133쪽.
- 제시문 (마): 『의무론과 칸트주의』,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21, 137-141쪽.
- 제시문 (바): 함민복, 『긍정적인 밥』,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20, 328쪽.
- 제시문 (사): 아렌트(Arendt, H.), 『인간의 조건과 직업』, 정택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9, 82쪽.
- 제시문 (아): 『쾌락의 추구하고 평정심』,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21, 113-115쪽.
- 제시문 (자): 루이스 포이만, 제임스 피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의 의미』,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20, 119쪽.
- 제시문 (차): 브래들리, 『쾌락의 역설: 쾌락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21, 119쪽.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교학사, 2021)에 실린 남구만의 「조설(釣說)」(성백호 번역)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서술자가 낚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타인의 조언과 충고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는 내용을 서술한 글이다. 글쓴이는 낚시의 방법이 아니라 이른바 묘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 이를 세상의 이치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깨우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9)에 실린 공선옥의 「명량한 밤길」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사랑에 실패하여 좌절감에 빠진 여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서 겪는 현실의 고단함과 삶의 애환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여인은 자신의 절망감을 극복해 나가고 자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21)에 실린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주인공이 한 수리공에게 욕실공사를 맡긴 후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선입견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수리공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데다가 뜻밖의 호의까지 베풀자 수리공에게 품었던 자신의 편협하고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20)에 실린 차범석의 「성난 기계」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직업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의사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이후 환자 남편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다루고 있다. 환자를 기계적으로만 대하던 의사는 환자 남편의 태도에 분노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21)에 실린 「의무론과 칸트주의」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해도 좋다고 기꺼이 바랄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칸트의 보편주의 정신 및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을 파악해야 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20) 교과서에 실린 함민복의 시 「긍정적인 밥」의 전문이다. 이 제시문은 시적 화자가 자기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쓰는 시의 값어치가 얼마 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시에 귀한 가치가 있음에 감사해한다. 그리고 시를 단순한 돈이 아닌 밥, 국밥, 소금 등의 일용한 양식에 견주어 봄으로써 겸허한 만족감과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직업」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맞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직업에 대한 의미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職)과 진정한 삶의 가치실현을 위한 업(業)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직업인의 윤리적, 태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21)에 실린 「쾌락의 추구와 평정심」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주요 철학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에피쿠로스학파가 규정한 쾌락의 정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식, 쾌락과 행복의 관계 등이다. 이 제시문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에 깊이 이해하고 관련 사상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20)에 실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의 의미」의 일부를 재편집한 글이다. 해당 부분의 원전은 루이스 포 이만과 제임스 피저가 저술한 『윤리학』이다.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쾌락기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쾌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21)에 「쾌락의 역설: 쾌락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의 일부를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의 원전은 브래들리가 저술한 『윤리적 학습』이다. 이 제시문은 쾌락으로 만족감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행복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은 쾌락을 통해 행복에 이르기 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쾌락의 역설의 핵심 내용이다. 이 내용은 쾌락과 행복의 관련성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생각이 전환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라)는 특정 계기로 생각이 전환되어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의 ‘나’는 타인의 충고에 따라 낚시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야 하고, 이는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우친다. (나)에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상처받고 좌절한 ‘나’는 타국에서의 고단한 일상을 극복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목격한다. 이를 계기로 절망을 딛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다)의 ‘그’는 수리공이 성실하고 정직한 데다 호의까지 베푸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꾼다. 이를 통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을 뉘우친다. (라)의 회기는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환자의 남편에게 분노하여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이후 그는 의사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환자를 살리기로 결심한다.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타인의 조언, 타인의 삶의 태도, 진정성과 호의, 타인의 파렴치함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고, 이를 통해 삶의 지혜, 삶의 희망, 편견의 문제점, 생명의 존엄성 등을 깨닫는다. (565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인옥과 회기의 대화’에서 나타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제시문 (마)를 근거로 평가하고,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의 회기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원칙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수술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회기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올바른 의료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마)의 첫 번째 정언 명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기는 인옥을 기계로 대상화하면서 사물과 같은 수단으로 치부한다. 회기가 환자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목적으로, 즉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는 두 번째 정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바)의 시인은 시를 써서 얻는 수입에 아쉬워하면서도 시로 돈을 벌 수 있음에 겸허히 감사해하며, 시의 가치를 일용할 양식에 빗대어 은근히 자부심을 드러낸다. (사)에서 ‘직’의 활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고, ‘업’의 활동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회기의 활동은 ‘노동’에는 해당하나 ‘행위’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회기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직업의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566자)

[문제 3] 제시문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아)의 에피쿠로스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쾌락을 분별하고, 일상에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자)의 쾌락기제는 인간의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말초적 쾌락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한편, (아)와 (차)를 비교하면, (아)의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한 진정한 쾌락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다면, (차)는 만족에 이른 쾌락이 계속해서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쾌락을 갈망함으로써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동일하다면, (차)에서 둘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420자)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계기: ‘내’(서술자)가 타인의 조언에 따라 낚시질을 반복적으로 시도함(4점)

깨달은 것: 이치는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야 하고, 이는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4점)

(나) 계기: ‘내’(화자)가 타국에서의 고단한 일상을 극복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목격함(4점)

깨달은 것: 실연의 상처와 좌절감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4점)

(다) 계기: ‘그’가 수리공(임 씨)이 성실하고 정직한 데다 호의까지 베푸는 모습을 봄(4점)

깨달은 것: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4점)

(라) 계기: ‘회기’(의사)가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환자의 남편에게 분노함(4점)

깨달은 것: 생명의 소중함과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것의 중요함(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와 이를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5점)

- [예시] ●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특정 계기로 생각이 전환되어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타인의 조언, 타인의 삶의 태도, 진정성과 호의, 타인의 파렴치함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고,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삶의 지혜, 삶의 희망, 편견의 문제점, 생명의 존엄성 등이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계기와 깨달은 것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칸트의 도덕법칙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환자에 대한 회기의 태도를 칸트의 두 가지 정언명령을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하여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5-20점 부여**

- ①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칸트의 첫 번째 정언명령은 보편성의 원리로서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준칙이 타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칙이어야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언명령은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제시문 (라) 속에서 나타나는 회기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원칙에 따라, 환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위험한 수술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에 어긋난다.

- 제시문 (마)의 칸트의 정언명령을 언급하는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라)에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언급하는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두 가지 정언명령과 (라)에 드러난 환자에 대한 회기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마)의 관점을 근거로 회기가 위반한 보편성 원리, 인간존중의 원리를 정확히 부여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 2) **(라)의 회기가 보여주는 의사로서의 문제점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기가 직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5~20점 부여**

- ① 제시문 (바)에 나타난 것은 직업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이다.
② 제시문 (사)의 논지는 '직'뿐 아니라 '업'의 조건을 충족하여 직업을 통해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시문 (바)의 직업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을 제시했을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사)의 '업'의 조건을 충족하여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제시했을 경우: 4~7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제시문 (라)의 회기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점을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를 근거로 (라)의 회기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평가(20): 5~20점	제시문 (마)의 관점을 서술한 경우	4~7점
		제시문 (라)에서 환자를 대하는 회기의 태도를 서술한 경우	4~7점
		(마)의 관점을 근거로 (라)의 회기의 행동을 통합하여 서술한 경우	15~20점
	②(바)와 (사)를 근거로 회기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평가(20): 5~20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4~7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8~14점
		두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라)의 회기에게 필요한 태도를 제시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와 (자)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찾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 ① 제시문 (아)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아)의 에피쿠로스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쾌락을 분별하고, 일상에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제시문 (자)에서 설명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자)의 쾌락기제는 인간의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말초적 쾌락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2) 제시문 (아)와 (차)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 찾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 ① 제시문 (아)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아)의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한 진정한 쾌락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제시문 (차)에서 설명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차)는 만족에 이른 쾌락이 계속해서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쾌락을 갈망함으로써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각각 찾아 명확히 설명(10점)	(아) 또는 (자)에서 쾌락 추구 방식을 찾아 설명	3~6점
		(아)와 (자)의 모두에서 쾌락 추구 방식을 찾아 설명	7~10점
	② (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 찾아 명확히 설명(10점)	(아) 또는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찾아 설명	3~6점
		(아)와 (차) 모두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찾아 설명	7~10점

2. 인문사회계열I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당시 일곱 살이었던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란길에 오른다. 수지는 여동생(오목)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오목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은표주박을 손에 쥐여주고 고의로 오목이의 손을 놓는다. 전쟁이 끝나고 친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 하던 수지는 어느 고아원에 오목이가 있음을 알고 가끔 찾아간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 오목이와 다시 만난 수지는 죄책감을 느껴 오목이에게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끝내 하지 못한다. 수지는 죄책감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오목이의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남편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이는 결핵이 심해져 쓰러지고 만다.

병원에선 오목이의 임종이 임박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 주사로 임종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목이의 의식은 또렷했고 표정은 해맑았다.

“언니, 어디 갔었어? 못 보고 죽을까 봐 얼마나 조바심했는 줄 알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고아원에서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난 언니가 싫었어. 왜 그렇게 미웠는지, 아마 질투였나 봐. 언니 제발 용서해 줘. 일생에 누굴 그렇게 미워해 보긴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난 미움받아 싸단다. 난 널 용서해 줄 자격도 없어. 아아, 내 죄를 네가 안다면…….”

“근데 언니, 내 미움은 참 이상해. 내가 남을 내 마음처럼 믿고 의지하기도 언니가 처음이었으니. 언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난 이미 죽었어야 했어. 언니도 알다시피 우린 두 내외가 다 고아 아뉴? 다 망가진 몸을 정신력 하나로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언니는 아마 모를 거야. 그때 언니를 다시 만난 거야. 언니를 만나고 부터는 정신력으로 살아 있는 그 지겹고 고된 일로부터 놓여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왜 그렇게 분명히 떠올랐을까. 아무튼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어린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누굴 믿는다는 건 동기간*에도 여간 우애 있는 동기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난 하필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언니에게 그런 걸 느낀 거야. 언니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언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걸 내 전 재산이자 내 모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못 알아내고 만 나의 정체까지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었을 거야. 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내가 지녀 온 유일한 물건이거든.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건져 올려 보려고 무진 애썼지만 허사였어. 아아, 내 아이들…….”

오목이가 천 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건네준 건 은표주박이었다. 은행알만 하고 청홍의 칠보 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은노리개였다. 수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공구해서* 풀썩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았다. 어쩌면 수지가 지금 껴든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로만 일관해 온 그녀의 삶의 축이었다. 마침내 그것을 껴으니 한없이 겸허하고 편안해지면서 견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왔다.

“오목아,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이렇게 목멘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므로.

*동기간(同氣間): 형제자매 사이.

*공구(恐懼)하다: 몹시 두렵다.

(나) 지난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서 숨졌다. 오십이 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 않고 “잘 자.”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 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았다. 많다가나 적다가나 하는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쟁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그 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 식품’이라는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 원액 백 퍼센트’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위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서 작은 카드가 나왔다. 카드 안에는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해님 어린이집’이라는 관습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송편을 예쁘게 포장해 들려 보낸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 영우 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마 바꾸려 한 모양이었다. 아내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무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부쳤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나는 소포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 원액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두 달 전 일이었다. (중략)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 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 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아내는 그 벽 아래에 사 인용 식탁을 샀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들어 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 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사 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 튕겨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도배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하다가 아내는 영우의 보상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자고 말한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내가 막 일어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세 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바쁘게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꿈쩍하지 않았다.

“여기…… 영우가 뭐 써 놔어…….”

“…… 뭐라고?”

“영우가 자기 이름…… 써 놔어.”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벽 아래를 가리켰다.

“근데 다…… 못 썼어…….” 아내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아직 성하고…….” 아내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다.

“이응하고…….”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싸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 (다) 그런 중에도 반백 년 교사 생활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학교에서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흰쌀밥으로 싸 오지 못하게 했고 음식점에서도 흰쌀밥을 파는 것이 금지됐다. 점심시간마다 담임 교사가 교실로 가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했다. 나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 아이들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따끔하게 세 대씩 때렸다.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은 다시는 쌀밥을 싸 오지 않았다. 나는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담임하는 반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를 바랐고 그건 혼분식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반 아이들의 삼분의 일가량이 아예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보릿고개 때가 되면 집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절량농가(絶糧農家)의 자식들이었다. 도시락을 혼분식 운동의 취지에 맞춰 제대로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전과 같이 손바닥 세 대,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손등을 세 대씩 때렸다.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구운 옥수수를 도시락이라며 가져왔다.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네인 산촌 개운리에 사는 김만수였다. 수진도 아닌 책보 속에 책과 공책, 몽당연필과 함께 구운 옥수수를 그냥 넣어 왔다.

그건 지난가을에 수확해 처마 밑에 매달아 뒀던 씨옥수수였다. 내가 아무리 농사에 무지해도 농부는 종자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굵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것을 훔쳐 간 사람이 자식이라 해도 때려죽이려 들 것이다.

내가 우리 반의 혼분식 운동 참여율이 백 퍼센트라고 보고한 그 날,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가루로 만든 빵을 학교에서 배급하게 되었다고 교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일주일쯤 뒤에 미국에서 왔다는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학생들에게 다섯 알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달나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로 새로 개량한 옥수수 품종이었다. 심기만 하면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달리고 알도 우리 토종 옥수수의 두 배는 되게 굵을 것이라 했다. (중략)

그런데 그날 저녁 만수가 어둑할 무렵 집으로 찾아왔다. 저녁상을 잠시 물려 놓고 밖으로 나오자 만수는 내게 짚으로 썬 뭔가를 두 손으로 쳐들어 공손히 내밀었다.

“그게 뭐냐?”

“달걀입니다.”

“달걀을 왜?”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낳았습니다.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달걀은 사 먹으면 된다. 너희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왜 여기까지 가져온 거냐?”

“할아버지가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됐다, 너나 먹어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내가 달걀 꾸러미를 도로 내밀자 만수는 손을 감추며 껌싸게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닭을 드리고 싶지만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해서요, 선생님. 장닭이 없으면 병아리를 못 깎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모르고요. 그래서 달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도로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수가 고개를 꾸벅하고는 말했다.

“맞아 죽지 않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수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나는 짚신보다 약간 더 길쭉한 달걀 꾸러미를 들고 한동안 어둠을 향해서 있었다. 고향의 학부형으로부터 생전 처음 받아 보는 진심 어린 촌지였다. 들고 있는 손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라) 역사 안에서는 주름이 반듯한 제복을 차려입은 역장이 로디지아*발 기차를 맞을 채비를 차리고 있었고, 역사 밖에서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원주민 상인들이 물건 팔 준비를 하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망연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자 목각상이 한 원주민의 자루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역장의 아이들은 맨발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너저분한 지붕을 머리에 얹은 한 토담집에서 뛰쳐나온 닭들과 양상한 뼈만 남은 개들이 선로를 따라 늘어선 흑인 원주민 아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었다. (중략)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육 펜스요?” 옆에 있던 백인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나리.”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다음에 사요.” 여자가 채근했다.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예요. 다음에 살래요.”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남편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늙은 원주민 상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자, 이걸 보시라.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뭐라구요?”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여자는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딱 벌어진 입, 뾰족한 이빨, 검은 혀 그리고 섬세한 갈기! 생각대로 일이 잘되어 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처럼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는 신경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뭐가. 도대체 왜 그래?”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냐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육 펜스에 말이죠.”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나뭇조각과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그렇게 늠름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쓸어 내는 소리를 쏟아부었다. 피로와 무기력함과 불현듯 찾아든 공허감이 여자의 사지로 퍼져 나갔다. 여자의 육신에서 소중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 로디지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의 옛 이름. 소수의 유럽계 백인들이 국민 다수의 흑인 원주민을 배제하며 정치 권력을 쥐었던 국가.

(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바)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경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호 작물의 주요 소비국은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 및 북부 아메리카의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계약 재배나 직접 경영을 통해 기호 작물을 싼 값에 산 뒤 값비싼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많은 이윤을 남긴다. 반면 현지의 농민이나 노동자가 받는 몫은 매우 적고, 이들 정부도 밀, 옥수수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선진국에서 식량 작물을 수입해야 하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 얽매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구매력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값싼 옷을 사는 것은 노동자들의 착취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커피, 차, 빵과 채소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의사 표시 행위가 될 수 있다. 유기농 생산물을 선택하는 일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소비를 할 때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의견을 표명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배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과묵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

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 십장(什長): 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

(아) 우리는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를 단순히 소비 상품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지닌 특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각자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 윤리의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자) 최근 들어 한류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뻗어 가고 있다. 초기 한류에 대한 반응들은 대부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며 한국을 널리 알림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준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점점 한류가 심화되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다른 나라의 문화가 한류에 종속됨으로써 또 다른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예전과 같은 수준의 문화 제국주의는 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 사회의 도래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글로벌 사회를 핑계로 문화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 차이를 우열 관계로 인식하는 태도는 서로 다른 사회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때 해당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뮐러는 문명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이해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명권들이 개방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차) 세계화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지의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개인은 국가 권력의 통제에서 떨어져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면서 개발 도상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는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등을 갖춘 선진국이나 소수 기업에게 유리하여 국가 간, 개인 간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추세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소수의 특정 문화가 광범위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국지적 문화들이 밀려나거나 소멸되어 문화적 다양성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상대방이 겪는 감정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2 인문사회계열 II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선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독서,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사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선물’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의미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선물을 주는 사람의 동기가 받는 사람에게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달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유추하는 맥락적 사고력, 3)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이후에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서 도출하여 그 변화의 양상(두려움과 미안함에서 참회와 평온, 화가 나는 감정에서 슬픔의 표출, 부담감에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 감정,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서 공허함과 무기력감)을 도출해내는 종합적 사고력, 4) 특정한 개념을 활용해 사회 현상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5)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6)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동일한 주제가 내포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 독해력과 이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특정 관점에서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주어진 네 제시문을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을 주고받음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선물이 갖는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이후, 선물을 받은 인물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렇게 각 제시문에서 찾은 이유와 감정의 변화를 단순 요약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요령 있게 압축하여 표현하는 능력, 말하자면 답안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사회발전에 있어 타인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곡된 가치관 극복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백인우월주의자의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이라는 추상적, 윤리적 대전제를 파악해 내는 것이 첫 번째 단초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제교역 상황에 있어 선진국과 제3세계 간 공정하지 못한 노동 착취 구조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이해하고 이러한 통합적 이해가 반영된 답안지 구성이 필요하다. 백인우월주의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 공감의 방법인 역지사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세계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문제의 출제의도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지문을 통합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특정한 이론이나 주장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2) 이러한 이론이나 주장 간 연관성을 비교 및 유추하여 두 개의 이론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특정한 주장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 제국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관계를 위계에 의한 종속관계로 파악하는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이를 수평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간 공존과 평화가 가능하다. 세계화의 양면성은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모두에게 연관될 수 있는데, 부정적 측면은 문화 획일화를 통한 문화 제국주의와 긍정적 측면은 문화 다양성 증진을 통한 문화 상대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방향이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8, 316~321쪽.
- 제시문 (나): 김애란, 『입동』, 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18, 268~275쪽.
- 제시문 (다): 성석제, 『투명인간』,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8, 286~291쪽.
- 제시문 (라):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 『로디지아발 기차』, 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2018, 101~108쪽.
- 제시문 (마):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박안수 외, 『국어』, 비상교육, 2017, 236쪽
- 제시문 (바):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 구조』, 신정엽 외,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2018, 186~187쪽
『우리는 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할까요』,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7, 145쪽
- 제시문 (사): 장영희, 『나와 남』,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8, 44~46쪽
- 제시문 (아):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7, 236쪽
- 제시문 (자): 『한류를 문화 제국주의로 볼 수 있을까?』,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8, 96쪽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7, 221쪽
- 제시문 (차):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이병인 외, 『세계사』, 비상, 2017, 207쪽.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박완서의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인용한 소설의 장면은, 6.25 전쟁 중 피란길에서 동생 오목을 버린 언니 수지가 병으로 죽어가는 동생에게서 선물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오목은 수지가 자신의 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마치 동기간처럼 정을 느끼게 된 수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고, 수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오목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제시문 (나)는 『문학』(창비, 2018)에 실린 『입동』에서 인용한 글로서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며, 학생들이 지문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중략 표시는 일부 생략했다. 어린이집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의 슬픔을 그려낸 소설 작품으로, 사고 이후 어린이집의 평판을 위해 무신경한 선물을 보낸 어린이집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부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문학』(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성석제의 『투명인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원문을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이 작품은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교사인 '나'가 가난한 농촌 마을의 학생들에게 혼분식 도시락을 싸 오도록 시키고 이에 가난한 농가의 '만수'가 씨옥수수를 구워오게 되는데, 이후 미국산 옥수수 종자와 빵을 배급받게 된 만수가 감사의 선물로 '나'에게 달걀을 선물한다. 이에 부담과 당황을 느끼다가, 순수한 선물에 교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라)는 『문학』(지학사, 2018)에 실린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의 『로디지아발 기차』를 출제의도에 맞게 일부 윤문하고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아프리카 원주민의 훌륭한 예술품 조각 작품인 사자상을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을 위해 그것을 선물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남편은 조각품의 가격을 흥정하여 싼값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부인은 원주민의 노동과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비상, 2018)에 실린 신경림의 시 『가난한 사랑 노래』를 전문 인용한 글이다. 이 시에서는 가난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랑 등의 인간 보편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감정과 인권 문제에 대해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세계지리』(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 구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17)에 실린 『우리는 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할까요』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앞의 제시문에서는 플랜테이션 중심 농업 구조를 통해 선진국들의 이익과 제3세계 노동자들의 고통이 맞물리는 과정이 잘 나타난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시민들의 윤리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제3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장영희의 수필 『나와 남』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저자는 문학 수업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삶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제시문에 의하면, 나와 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역할 바꾸기, 즉 역지사지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 2017)에 실린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의 일부를 출처의도에 맞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이를 위해 각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시민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 윤리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8)에 실린 「한류를 문화 제국주의로 볼 수 있을까?」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지학사, 2017)에 실린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한류의 확산이 문화 제국주의로 다른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상이 정보화와 세계화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서로 다른 문화간 개방과 교류를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세계사』(비상, 2017)에 실린 「오늘날의 세계」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세계화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세계화의 결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가 예측된다. 반면, 세계화는 국가 간 경제적 예측 관계를 강화하고 개인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소수의 강한 지배력을 가진 문화가 국지적 문화들을 위축시켜 문화 획일성을 불러오기도 한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가)의 오목이는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며, 이를 받은 언니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워왔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낀다. (나)의 어린이집은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원생들의 집에 선물을 보냈으나, 배려 없는 선물에 부부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한다. (다)의 만수는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고, 선생님은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라)의 남편은 부인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 선물을 사줬다. 부인은 처음엔 험값에 조각상을 사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낀다.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568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하고 있다.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한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하자면, 먼저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된다. (567자)

[문제 3]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자)에 따르면 문화 제국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위계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조성되기 때문에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문화 간 공존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에 따르면 세계화를 통해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해지며 이는 문화 상대주의를 촉진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를 통해 소수의 특정 문화가 강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지적 문화가 위축되면서 문화 획일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문화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화는 두 현상과 연관성을 갖는다. (420자)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 (가) **이유:**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2점)
변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뤄왔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낌(6점)
- (나) **이유:** 어린이집에서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에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6점)
- (다) **이유:**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낌(6점)
- (라) **이유:** 부인이 갖고 싶던 사자상을 선물해주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혈값에 조각상을 사 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낌(6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찾은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자신의 언어로 잘 압축하여 글을 맺고 있는지, 즉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 [예시]**
- **서론:**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 **결론:**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 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이유와 변화를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 파악: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 (5점),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5점)
②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해 내야 함(10점)

2)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 파악: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5점),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5점)
②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해 보자면,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사 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됨(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도출한 경우	9~15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논리적으로 도출한 경우	16~20점
	②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제시한 경우	9~15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16~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 ① 문화 제국주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문화 제국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위계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 ② 문화 상대주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조성되기 때문에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문화 간 공존을 가능케 한다.

2) 제시문 (차)를 토대로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평가한다.(10점)

- ①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세계화를 통해 소수의 특정 문화가 강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지적 문화가 위축되면서 문화 획일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문화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 ②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세계화를 통해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해지며 이는 문화 상대주의를 촉진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서술하였는지 평가(10점)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특성 중 하나만 잘 설명했을 경우	3~6점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특성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7~10점
	② 제시문 (차)를 토대로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평가(10점)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 또는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하나만 잘 설명했을 경우	3~6점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 또는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을 경우	7~10점

3. 경영경제계열 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보배로운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흩어져 없어지고 만다. 오늘 이 책을 읽고 내일 저 책을 읽더라도, 저마다 따로 놀아 하나의 체계로 꿰지 않으면 책에서 얻은 지식은 금세 사라져 버린다. 오늘 읽은 책이 내일 읽는 책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갈래를 나누고 체계를 세워 지식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채워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읽기만 해서는 도무지 독서의 보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마구잡이 독서는 읽지 않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저 읽은 책의 목록만 추가하는 의미 없는 독서에 머물고 만다.

갈래와 체계를 세우는 일을 다산은 색깔별로 구슬 꿰는 일에 견주었다. 먼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분야를 정한다. 그리고 나서 그 분야에서 정평 있고 내 수준에 알맞은 책을 몇 권 골라 단계에 따라 읽어 나간다.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과 관련하여 다시 다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소개한 또 다른 책을 읽는 방식이 구슬 꿰기 독서 방법이다. 다음은 정약용이 아들 정학유에게 부친 편지의 한 대목이다.

“내가 최근 몇 년 이래 독서에 관해 자못 깨달은 점이 있다. 한갓 읽기만 해서는 비록 날마다 백 번 천 번을 읽는다 해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무릇 독서란 매번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널리 살펴보고 자세히 궁구하여* 그 근원 되는 뿌리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례대로 글을 이룰 수 있다.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한 종류의 책을 읽더라도 겉으로 백 종류의 책을 아울러 살피게 될 뿐 아니라 그 책의 내용도 환하게 꿰뚫을 수 있게 될 터이니, 이 점을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책을 읽다가 어느 하나가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꼬리 물기 독서 방법론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계속 의미를 파고들어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독서는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져야 한다. 덮어놓고 읽는 대신 계통을 세워 관심의 영역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누적되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어느 한 주제를 따라서 감자 넝쿨 캐듯 한 책을 통해 또 다른 책을 소개받고, 이 책을 읽다가 저 책에 흥미가 생기는 구슬 꿰기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차츰 전에는 가늠조차 할 수 없던 내용이 친숙해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덮어야 했던 부분에 관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독서가 여기에 이르면 이른바 전문가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궁구하여: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여.

(나)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1,500그램으로 몸무게의 약 2.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한 개의 신경 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이어져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 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

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 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분의 1밀리미터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다다른다.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각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질환이 발생한다.

^{*}세포질: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세포막 안의 부분. 생명 현상이 발현되는 살아 있는 부분임.

^{*}연접: 신경 세포의 신경 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 세포와 접합하는 부위.

^{*}항상성: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다)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엷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모두들 긴장했다.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엷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엷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엷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 알았지?”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합창단 축제 공연은 엿박자 D가 노래를 부른 탓에 엉망이 되고 만다. 음악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합창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망신을 주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나'는 공연기획자가 되었고, 엿박자 D는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되었다. '나'와 엿박자 D는 함께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준비하게 된다. 엿박자 D의 부탁으로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을 함께했던 몇몇 친구들을 공연에 초청한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음향 점검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엿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엿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라)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 곧 공동체의 촌락을 뜻한다. 과거의 살림집은 마당과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었기에 생활의 영역은 마을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이웃 간의 정보, 노동력, 생산품의 교환을 쉽게 해 주었다.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사는 ‘정주성’이 형성된다.

개인의 주거 공간을 한정하는 담과 담 사이에는 길과 공터가 있었다. 전통 주거지의 길은 큰길에서 안길이 뻗

어 나가고 또 그 길에서 셋길이 뻗어 나가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길이 곧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여겼는데,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 길하다*고 여겼다. 또한 집이 큰길 옆에 있는 것 역시 꺼린 탓에 전통 마을의 집은 싹뿔처럼 얹힌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하였다. 이런 까닭에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에는 항상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했다.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의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그들 사이에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였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였다.

*길하다: 운이 좋거나 일이 상서롭다.

(마)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누리 소통망(SNS)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글을 그곳에 방출한다는 것은 그 활동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서적 교류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쁨 외에, 누리 소통망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일까? 경제학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리 소통망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일까?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좀 더 집중하여 생각해 본다면, 사회 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사회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과 같은 무형의 자본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신뢰’이다. 똑같은 물적·인적 자원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 안에 신뢰가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진다. 사회 자본이 줄어든 사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 사회 자본이 살아나게 된 사회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경제 발전이 더 용이할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 자본이 긍정적 영향, 즉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사회 자본 연구자들은 누리 소통망 활동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과연 누리 소통망 활동은 사회 자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만약 도움을 준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사회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 주는 연구가 있다. 누리 소통망 이용이 기존에 알고 지내는 집단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측면은 크지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누리 소통망 이용이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즉, 이미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외부인을 불신하는 마음은 더 강해진다는 말이다.

연구팀은 누리 소통망의 이용이 외부인과의 접촉면을 더 늘렸지만, 누리 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물고 뜯는 논쟁들을 자주 접하며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하락했다는 이야기다.

사회 자본의 이런 상충적인 특성은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거꾸로 집단 외부인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와 타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유대감

이 강화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 『잡아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지게는 홀로 설 수 없고, 반드시 작대기에 의지해야 한다. 또 누구든 혼자 부를 쌓거나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존재에 의지해야 가능하다. 따뜻함은 차가움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없다. 기쁨과 즐거움도 슬픔과 괴로움에 의지한다.

(사)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회*들이 있습니다. 1453년 메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 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와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

*사화(史話): 역사에 관한 이야기.

*모스크: 이슬람교에서 예배하는 건물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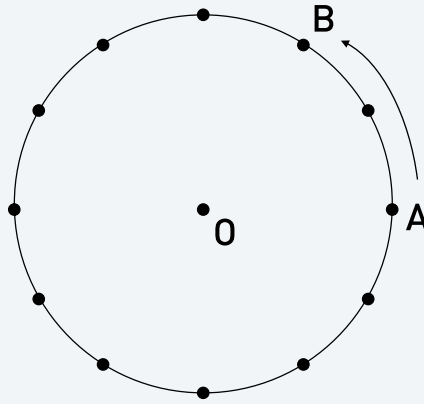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언급된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에 설명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말을 옮기는 게임을 고려하자.

- 주머니에는 숫자 1이 적혀 있는 공 1개, 숫자 2가 적혀 있는 공 2개, 숫자 6이 적혀 있는 공 1개가 들어 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를 12등분하는 12개의 점으로 구성된 게임판이 있다. 게임의 첫 출발점은 A이다.



-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뽑은 후 공에 적혀 있는 숫자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을 옮긴다. 예를 들어, 2가 적혀 있는 공을 뽑으면 말을 점 A에서 점 B로 옮긴다.(단, 한 번 뽑은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다.)
 - ② 이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원의 중심 O를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단,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원의 넓이와 같다.)
- 참가자는 위의 시행을 연속하여 2회 진행한다. 두 번째 시행은 첫 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 남아 있는 공을 사용하며, 두 번째 시행의 출발점은 첫 번째 시행의 도착점이다.
- 게임의 최종 점수는 각 시행에서 얻은 점수의 합이다.

[문제 3] 한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2 경영경제계열 I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독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연결'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를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서 도출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누리 소통망의 이용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4) 잡아함경의 갈대 비유와 메메트 2세에 얽힌 역사적 이야기를 통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그리고 유추적 사고력, 5)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지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지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나타나는 연결의 대상, 유형, 특징,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각 제시문에 나타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지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특정 글의 논지에 근거하여 다른 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 3)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여 특정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핵심어를 뽑아냄으로써 통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 내부인과 외부인의 신뢰의 측면, 사회 전체의 통합력 측면을 나눠 도출할 수 있고, 상호의존적 관계와 포용적 관용을 연계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존과 관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문제 3]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이해하고 관련된 확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능력은 중요하다. 특히, 반복된 실험에서 동일한 확률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 확률 계산에서 이해력이 요구된다. 확률변수의 기댓값은 확률변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값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산 확률변수 및 그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정민, 「구슬땀과 꼬리물기 독서법」, 정민 외 26인, 『국어』, 해냄에듀, 2017, 14-18쪽.
- 제시문 (나): 서유현,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서혁 외 6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8, 54-57쪽.
- 제시문 (다): 김중혁, 「옛박자 D」, 류수열 외 10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134-143쪽.
- 제시문 (라): 전남일,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최원식 외 18인, 『국어』, 창비, 2017, 172-176쪽.
- 제시문 (마): 김윤지, 「누리 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 『독서』, 동아출판, 2018, 134-138쪽.
- 제시문 (바): 「연기」, 정창우 외 6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7, 22쪽.
「초기 불교의 사상: 연기설, 삼법인, 사성제」, 류지한 외 8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8, 56쪽.
- 제시문 (사):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8, 11-13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7)에 실린 정민의 글 「구슬깨기와 꼬리 물기 독서법」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부친 편지의 내용을 인용하며,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읽는 마구잡이 독서가 아니라 색깔별로 구슬을 꿰듯 관심 분야에 따라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독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꼬리 물기 독서 방법은 읽는 사람이 내용을 꿰뚫어 이해하고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세포에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분자가 특정 수용체 분자와 선별적으로 결합하여 특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정신 기능을 결정하고,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쥬금성출판사, 2018)에 실린 「엇박자 D」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 음치이자 박치였던 엇박자 D가 이후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되어 서로 음이 맞지 않는 목소리들을 절묘하게 배치하여 서로 겹치는 목소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아름다운 화음처럼 어우러지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창비, 2017)에 실린 전남일의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공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정주성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다. 전통 마을에서는 집과 집이 싹틔죽처럼 엮힌 불규칙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길을 따라 자리하여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 2018) 교과서에 실린 김윤지의 「누리 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현대인이 이용하는 누리 소통망(SNS)이 '사회 자본'과,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누리 소통망이 사회 자본을 늘리는 지의 여부를 논하는 글의 일부인 이 글은 누리 소통망 활동이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하고,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하락하고, 사회전체적 신뢰나 통합력은 떨어뜨린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2017) 교과서에 실린 「불교의 윤리적 접근」 중 「연기(緣起)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과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불교와 자비의 윤리」 중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불교의 '연기설'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연기설은 만물의 존재와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비의 윤리를 제시한다. 제시된 부분은 '연기설'에서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해냄에듀, 2018) 교과서에 실린 신영복의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저자가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느낀 성찰적 사유를 편지글 형식으로 담아낸 수필이다. 특히, 1453년 오스만 튀르크 메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당시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고 보호했던 상황을 제시했다. 저자는 터키의 역사에서 이단에 대한 박해보다는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이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관용과 관대함과 공존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문제 3번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천재교과서, 2020, 80-84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교학사, 2020, 82-88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79-83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미래엔, 2020, 79-85쪽.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천재교과서, 2020, 85-92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 교학사, 2020, 89-95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좋은책신사고, 2020, 84-90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미래엔, 2020, 86-91쪽.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독서(책), 세포, 소리, 공간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가)에서는 읽는 이의 관심에 의해 시작된 독서가 체계적이고 연쇄적으로 심화·확산되는 꼬리물기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내용에 정통하고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에서는 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선별적으로 일정량이 결합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을 결정하는 정보가 전달되고 정신 건강이 유지된다. (다)에서는 서로 다른 노랫소리들이 재배치되어 서로 중첩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음과 박자가 맞지는 않지만 서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화음이 만들어진다. (라)에서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길과 공터와 같은 사이 공간을 매개로 불규칙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 결과 마을 구성원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정주성과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연결의 방식은 연쇄적 체계화, 매개, 리믹스, 자연적인 형성 등이고, 그 연결의 결과로 전문가, 정신 활동, 새로운 화음, 마을 공동체 등이 만들어진다. (57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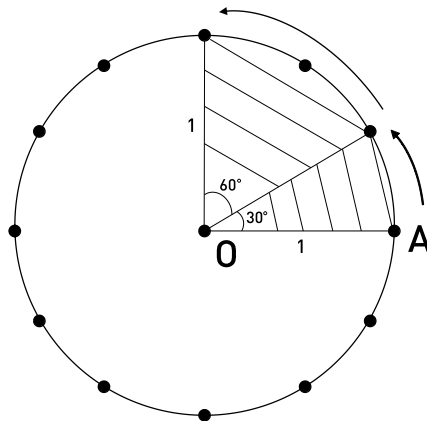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언급된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에 설명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는 누리 소통망 활동이 내부 결속 강화로 인한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 사회 전체의 통합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라)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마을 내부의 결속은 강해지는 반면,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에는 마을 내부의 유대감은 높아질 수 있으나 마을들 사이의 통합력은 줄어 ‘사회적 신뢰’는 하락할 수 있다. (바)는 세상 모든 것은 서로에게 기대야만 존재할 수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세 개의 갈대에 대한 비유를 통해 보여준다. (사)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를 오스만 튀르크가 비잔틴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도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따라서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려는 공존과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570자)

[문제 3] 한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행에서 1번 공, 두 번째 시행에서 2번 공을 뽑는다고 하면, 발생할 확률은 $\frac{1}{4} \times \frac{2}{3} = \frac{1}{6}$ 이다. 그때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삼각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 즉, 두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각이 30도인 이등변삼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 이등변삼각형의 넓이} = \frac{1}{2} \times 1 \times 1 \times \sin 30^\circ = \frac{1}{4}$$

$$\text{- 정삼각형의 넓이} = \frac{1}{2} \times 1 \times 1 \times \sin 60^\circ = \frac{\sqrt{3}}{4}$$

- 따라서 이때 게임의 점수는 $\frac{1}{4} + \frac{\sqrt{3}}{4} = \frac{1+\sqrt{3}}{4}$ 이 된다.

-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가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모든 경우와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확률	최종 점수
1	2	$\frac{1}{4} \times \frac{2}{3} = \frac{1}{6}$	$\frac{1+\sqrt{3}}{4}$
1	6	$\frac{1}{4} \times \frac{1}{3} = \frac{1}{12}$	$\frac{1}{4} + \pi$
2	1	$\frac{1}{2} \times \frac{1}{3} = \frac{1}{6}$	$\frac{1+\sqrt{3}}{4}$
2	2	$\frac{1}{2} \times \frac{1}{3} = \frac{1}{6}$	$\frac{\sqrt{3}}{4} + \frac{\sqrt{3}}{4} = \frac{\sqrt{3}}{2}$
2	6	$\frac{1}{2} \times \frac{1}{3} = \frac{1}{6}$	$\frac{\sqrt{3}}{4} + \pi$
6	1	$\frac{1}{4} \times \frac{1}{3} = \frac{1}{12}$	$\frac{1}{4} + \pi$
6	2	$\frac{1}{4} \times \frac{2}{3} = \frac{1}{6}$	$\frac{\sqrt{3}}{4} + \pi$

-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기댓값} &= \frac{1+\sqrt{3}}{4} \times \frac{1}{6} \times 2 + \left(\frac{1}{4} + \pi\right) \times \frac{1}{12} \times 2 + \frac{\sqrt{3}}{2} \times \frac{1}{6} + \left(\frac{\sqrt{3}}{4} + \pi\right) \times \frac{1}{6} \times 2 \\ &= \frac{1}{8} + \frac{\sqrt{3}}{4} + \frac{\pi}{2} \end{aligned}$$

- 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다.

시행 결과	최종 점수	발생 확률
(1, 2), (2, 1)	$\frac{1+\sqrt{3}}{4}$	$\frac{1}{6} + \frac{1}{6} = \frac{1}{3}$
(1, 6), (6, 1)	$\frac{1}{4} + \pi$	$\frac{1}{12} + \frac{1}{12} = \frac{1}{6}$
(2, 2)	$\frac{\sqrt{3}}{2}$	$\frac{1}{6}$
(2, 6), (6, 2)	$\frac{\sqrt{3}}{4} + \pi$	$\frac{1}{6} + \frac{1}{6} = \frac{1}{3}$

-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기댓값} &= \frac{1+\sqrt{3}}{4} \times \frac{1}{3} + \left(\frac{1}{4} + \pi\right) \times \frac{1}{6} + \frac{\sqrt{3}}{2} \times \frac{1}{6} + \left(\frac{\sqrt{3}}{4} + \pi\right) \times \frac{1}{3} \\ &= \frac{1}{8} + \frac{\sqrt{3}}{4} + \frac{\pi}{2} \end{aligned}$$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연결의 ‘방식’과 ‘결과’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 (가) **방식:** 읽는 이의 관심에 의해 시작된 독서가 체계적이고 연쇄적으로 심화, 확산되는 방식(4점)
결과: 내용에 정통하고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됨(4점)
(나) **방식:** 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선별적으로 일정량이 결합되는 방식(4점)
결과: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을 결정하는 정보가 전달되고 정신 건강이 유지됨(4점)
(다) **방식:** 서로 다른 노랫소리들이 재배치되어 서로 중첩되는 방식(4점)
결과: 음과 박자가 맞지는 않지만 서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화음이 됨(4점)
(라) **방식:**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길과 공터와 같은 사이 공간을 매개로 불규칙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4점)
결과: 마을 구성원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정주성과 커뮤니티가 형성됨(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연결이 되는 ‘방식’과 그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독서(책), 세포, 소리, 공간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 **결론:** 결론적으로 연결의 방식은 연쇄적 체계화, 매개, 리믹스, 자연적인 형성 등이고, 그 연결의 결과로 전문가, 정신 활동, 새로운 화음, 마을 공동체 등이 만들어진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방식과 결과를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지를 파악했는 지를 평가한다.(6점)

- ① 내부 결속 강화와 집단 외부인에 대한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2점)
②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2점)
③ 사회 전체의 통합력 약화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과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을 모두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2점)

2) 제시문 (라)의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기술했는지 평가한다.(14점)

- ①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서술했음(4점)
②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서술했음(4점)
③ 마을들 사이의 통합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음과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서술했음(6점)

3)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바)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사)의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에서 ‘공존과 관용’을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바)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갈대의 비유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했음(5점)
② (사)의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를 오스만 튀르크가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는 많은 사례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했음(5점)
③ (바)와 (사)를 통합하여 상호의존성에서 ‘공존의 자세’,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제시하여 서술했음(10점)

* 단, 글이 ‘공존과 관용’에 관한 통합적 진술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지를 변별하여 파악하고 서술했는지 평가(6점)	내부 결속 강화와 집단 외부인에 대한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	2점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을 기술한 경우	4점
		사회 전체의 통합력 약화까지 포함하여 내부 결속 강화와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 부족과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 하락을 모두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	6점
	② (마)의 ‘마을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도출하여 서술했음(14점)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서술했음	2~5점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서술했음	6~9점
		마을들 사이의 통합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마을 외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음과 새로운 마을과의 소통과 연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서술했음	10~14점
	③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존과 관용’을 도출했음을 평가(20점)	(바)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갈대의 비유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	2~3점
		(사)의 관대함과 포용의 가치를 오스만 튀르크가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도출하여 서술했음	4~7 점
		상호의존성에서 ‘공존의 자세’만 기술했음	8~12 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제시하여 서술	13~16 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에서 ‘공존’을, (마)에서 ‘관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경우	17~20 점

[문제 3] 20점 만점

- 두 번의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7점
- 두 번의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점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8점
- 점수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 1 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4. 경영경제계열I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당시 일곱 살이었던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란길에 오른다. 수지는 여동생(오목)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오목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은표주박을 손에 쥐여주고 고의로 오목이의 손을 놓는다. 전쟁이 끝나고 친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 하던 수지는 어느 고아원에 오목이가 있음을 알고 가끔 찾아간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 오목이와 다시 만난 수지는 죄책감을 느껴 오목이에게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끝내 하지 못한다. 수지는 죄책감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오목이의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남편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이는 결핵이 심해져 쓰러지고 만다.

병원에선 오목이의 임종이 임박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 주사로 임종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목이의 의식은 또렷했고 표정은 해맑았다.

“언니, 어디 갔었어? 못 보고 죽을까 봐 얼마나 조바심했는 줄 알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고아원에서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난 언니가 싫었어. 왜 그렇게 미웠는지, 아마 질투였나 봐. 언니 제발 용서해 줘. 일생에 누굴 그렇게 미워해 보긴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난 미움받아 싸단다. 난 널 용서해 줄 자격도 없어. 아아, 내 죄를 네가 안다면…….”

“근데 언니, 내 미움은 참 이상해. 내가 남을 내 마음처럼 믿고 의지하기도 언니가 처음이었으니. 언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난 이미 죽었어야 했어.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두 내외가 다 고아 아누? 다 망가진 몸을 정신력 하나로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언니는 아마 모를 거야. 그때 언니를 다시 만난 거야. 언니를 만나고 부터는 정신력으로 살아 있는 그 지겹고 고된 일로부터 놓여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왜 그렇게 분명히 떠올랐을까. 아무튼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어린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누구를 믿는다는 건 동기간*에도 여간 우애 있는 동기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난 하필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언니에게 그런 걸 느낀 거야. 언니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언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건 내 전 재산이자 내 모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못 알아내고 만 나의 정체까지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었을 거야. 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내가 지녀 온 유일한 물건이거든.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건져 올려 보려고 무진 애썼지만 허사였어. 아아, 내 아이들…….”

오목이가 천 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건네준 건 은표주박이었다. 은행알만 하고 청홍의 칠보 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은노리개였다. 수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공구해서* 풀썩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았다. 어쩌면 수지가 지금 꿇은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로만 일관해 온 그녀의 삶의 축이었다. 마침내 그것을 껴으니 한없이 겸허하고 편안해지면서 견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왔다.

“오목아,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이렇게 목멘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여 있었으므로.

*동기간(同氣間): 형제자매 사이.

*공구(恐懼)하다: 몹시 두렵다.

(나) 지난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서 숨졌다. 오십이 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 않고 “잘 자.”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 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았다. 많거나 적거나 하는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쟁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그 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 식품’이라는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 원액 백 퍼센트’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위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서 작은 카드가 나왔다. 카드 안에는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해님 어린이집’이라는 관습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송편을 예쁘게 포장해 들려 보낸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 영우 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마 바꾸려 한 모양이었다. 아내는 이 사람들 어찌면 이렇게 무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부쳤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나는 소포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 원액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 뒀다고 생각했다. 그게 두 달 전 일이었다. (중략)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 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 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아내는 그 벽 아래에 사 인용 식탁을 샀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들어 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 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사 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 튼 거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도배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하다가 아내는 영우의 보상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자고 말한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내가 막 일어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세 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바쁘게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꿈쩍하지 않았다.

“여기…… 영우가 뭐 써 놔어…….”

“…… 뭐라고?”

“영우가 자기 이름…… 써 놔어.”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벽 아래를 가리켰다.

“근데 다…… 못 썼어…….” 아내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아직 성하고…….” 아내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다.

“이응하고…….”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싸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다) 그런 중에도 반백 년 교사 생활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학교에서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흰쌀밥으로 싸 오지 못하게 했고 음식점에서도 흰쌀밥을 파는 것이 금지됐다. 점심시간마다 담임 교사가 교실로 가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했다. 나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 아이들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따끔하게 세 대씩 때렸다.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은 다시는 쌀밥을 싸 오지 않았다. 나는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담임하는 반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를 바랐고 그건 혼분식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반 아이들의 삼분의 일가량이 아예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보릿고개 때가 되면 집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절량농가(絶糧農家)의 자식들이었다. 도시락을 혼분식 운동의 취지에 맞춰 제대로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전과 같이 손바닥 세 대,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손등을 세 대씩 때렸다.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구운 옥수수를 도시락이라며 가져왔다.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네인 산촌 개운리에 사는 김만수였다. 수건도 아닌 책보 속에 책과 공책, 몽당연필과 함께 구운 옥수수를 그냥 넣어 왔다.

그건 지난가을에 수확해 처마 밑에 매달아 뒀던 씨옥수수였다. 내가 아무리 농사에 무지해도 농부는 종자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것을 훔쳐 간 사람이 자식이라 해도 때려죽이려 들 것이다.

내가 우리 반의 혼분식 운동 참여율이 백 퍼센트라고 보고한 그 날,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숫가루로 만든 빵을 학교에서 배급하게 되었다고 교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일주일쯤 뒤에 미국에서 왔다는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학생들에게 다섯 알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달나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로 새로 개량한 옥수수 품종이었다. 심기만 하면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달리고 알도 우리 토종 옥수수의 두 배는 되게 굵을 것이라 했다. (중략)

그런데 그날 저녁 만수가 어둑할 무렵 집으로 찾아왔다. 저녁상을 잠시 물려 놓고 밖으로 나오자 만수는 내게 짚으로 짠 뭔가를 두 손으로 쳐들어 공손히 내밀었다.

“그게 뭐냐?”

“달걀입니다.”

“달걀을 왜?”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낳았습니다.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달걀은 사 먹으면 된다. 너희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왜 여기까지 가져온 거냐.”

“할아버지가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됐다, 너나 먹어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내가 달걀 꾸러미를 도로 내밀자 만수는 손을 감추며 쩍싸게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닭을 드리고 싶지만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해서요, 선생님. 장닭이 없으면 병아리를 못 깹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모르구요. 그래서 달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도로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수가 고개를 꾸벅하고는 말했다.

“맞아 죽지 않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수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나는 짚신보다 약간 더 길쭉한 달걀 꾸러미를 들고 한동안 어둠을 향해 서 있었다. 고향의 학부형으로부터 생전 처음 받아 보는 진심 어린 촌지였다. 들고 있는 손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라) 역사 안에서는 주름이 반듯한 제복을 차려입은 역장이 로디지아*밭 기차를 맞을 채비를 차리고 있었고, 역사 밖에서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원주민 상인들이 물건 팔 준비를 하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망연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자 목각상이 한 원주민의 자루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역장의 아이들은 맨발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너저분한 지붕을 머리에 얹은 한 토담집에서 뛰쳐나온 닭들과 양상한 뼈만 남은 개들이 선로를 따라 늘어선 흑인 원주민 아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중략)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육 펜스요?” 옆에 있던 백인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나리.”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다음에 사요.” 여자가 채근했다.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예요. 다음에 살래요.”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남편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늙은 원주민 상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자, 이걸 보시라.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뭐라구요?”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여자는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딱 벌어진 입, 뾰족한 이빨, 검은 혀 그리고 섬세한 갈기! 생각대로 일이 잘되어 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처럼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는 신경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뭐가. 도대체 왜 그래?”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냐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육 펜스에 말이죠.”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나뭇조각과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그렇게 늑막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쓸어 내는 소리를 쏟아부었다. 피로와 무기력함과 불현듯 찾아든 공허감이 여자의 사지로 퍼져 나갔다. 여자의 육신에서 소중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 로디지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의 옛 이름. 소수의 유럽계 백인들이 국민 다수의 흑인 원주민을 배제하며 정치 권력을 쥐었던 국가.

(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바)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경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호 작물의 주요 소비국은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 및 북부 아메리카의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계약 재배나 직접 경영을 통해 기호 작물을 싼 값에 산 뒤 값비싼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많은 이윤을 남긴다. 반면 현지의 농민이나 노동자가 받는 몫은 매우 적고, 이들 정부도 밀, 옥수수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선진국에서 식량 작물을 수입해야 하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 얽매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구매력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값싼 옷을 사는 것은 노동자들의 착취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커피, 차, 빵과 채소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의사 표시 행위가 될 수 있다. 유기농 생산물을 선택하는 일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소비를 할 때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의견을 표명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배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

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십장(什長): 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

- (아) 우리는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를 단순히 소비 상품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지닌 특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각자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 윤리의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상대방이 겪는 감정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아래와 같은 게임을 통해서 선물을 주려고 한다.

-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 있는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이때, 서로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 중에서 1개를 버리고, 나머지 1개는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을 모두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 주머니에 남아 있는 공을 가지고 위의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한 후 게임을 종료한다.
- 게임이 종료된 후 주머니에 들어 있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주머니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만큼 선물을 준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의 차이만큼 선물을 준다.

[문제 3] 한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 개수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2 경영경제계열 II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선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독서,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사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선물'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의미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선물을 주는 사람의 동기가 받는 사람에게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달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유추하는 맥락적 사고력, 3)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이후에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서 도출하여 그 변화의 양상(두려움과 미안함에서 참회와 평온, 화가 나는 감정에서 슬픔의 표출, 부담감에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 감정,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서 공허함과 무기력감)을 도출해내는 종합적 사고력, 4) 특정한 개념을 활용해 사회 현상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5)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6)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7) 그리고 수리적 사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동일한 주제가 내포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 독해력과 이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특정 관점에서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주어진 네 제시문을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을 주고받음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선물이 갖는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이후, 선물을 받은 인물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렇게 각 제시문에서 찾은 이유와 감정의 변화를 단순 요약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요령 있게 압축하여 표현하는 능력, 말하자면 답안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사회발전에 있어 타인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곡된 가치관 극복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백인우월주의자의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이라는 추상적, 윤리적 대전제를 파악해 내는 것이 첫 번째 단초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제교역 상황에 있어 선진국과 제3세계 간 공정하지 못한 노동 착취 구조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이해하고 이러한 통합적 이해가 반영된 답안지 구성이 필요하다. 백인우월주의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 공감의 방법인 역지사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세계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문제의 출제의도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지문을 통합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 3]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이해하고 관련된 확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능력은 중요하다. 특히, 반복된 실험에서 동일한 확률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 확률 계산에서 이해력이 요구된다. 확률변수의 기댓값은 확률변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값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산 확률변수 및 그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 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8, 316~321쪽.
- 제시문 (나): 김애란, 『입동』, 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18, 268~275쪽.
- 제시문 (다): 성석제, 『투명인간』,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8, 286~291쪽.
- 제시문 (라):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 『로디지아발 기차』, 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2018, 101~108쪽.
- 제시문 (마):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박안수 외, 『국어』, 비상교육, 2017, 236쪽.
- 제시문 (바):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 구조』, 신정엽 외,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2018, 186~187쪽.
『우리는 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할까요』,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7, 145쪽.
- 제시문 (사): 장영희, 『나와 남』,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8, 44~46쪽.
- 제시문 (아):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7, 236쪽.

제시문 (가)는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박완서의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인용한 소설의 장면은, 6.25 전쟁 중 피란길에서 동생 오목을 버린 언니 수지가 병으로 죽어가는 동생에게서 선물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오목은 수지가 자신의 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마치 동기간처럼 정을 느끼게 된 수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고, 수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오목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제시문 (나)는 『문학』(창비, 2018)에 실린 『입동』에서 인용한 글로서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며, 학생들이 지문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중략 표시는 일부 생략했다. 어린이집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의 슬픔을 그려낸 소설 작품으로, 사고 이후 어린이집의 평판을 위해 무신경한 선물을 보낸 어린이집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부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문학』(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성석제의 『투명인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원문을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이 작품은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교사인 ‘나’가 가난한 농촌 마을의 학생들에게 혼분식 도시락을 싸오도록 시키고 이에 가난한 농가의 ‘만수’가 씨옥수수 구워오게 되는데, 이후 미국산 옥수수 종자와 빵을 배급 받게 된 만수가 감사의 선물로 ‘나’에게 달걀을 선물한다. 이에 부담과 당황을 느끼다가, 순수한 선물에 교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라)는 『문학』(지학사, 2018)에 실린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의 『로디지아발 기차』를 출제의도에 맞게 일부 윤문하고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아프리카 원주민의 훌륭한 예술품 조각 작품인 사자상을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을 위해 그것을 선물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남편은 조각품의 가격을 흥정하여 싼 값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부인은 원주민의 노동과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비상, 2018)에 실린 신경림의 시 『가난한 사랑 노래』를 전문 인용한 글이다. 이 시에서는 가난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랑 등의 인간 보편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감정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세계지리』(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 구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17)에 실린 『우리는 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할까요』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앞의 제시문에서는 플랜테이션 중심 농업 구조를 통해 선진국들의 이익과 제3세계 노동자들의 고통이 맞물리는 과정이 잘 나타난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시민들의 윤리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제3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장영희의 수필 『나와 남』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저자는 문학 수업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삶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제시문에 의하면, 나와 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역할 바꾸기, 즉 역지사지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 2017)에 실린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맞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이를 위해 각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문화적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윤리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 3번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천재교과서, 2020, 80-84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교학사, 2020, 82-88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79-83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미래엔, 2020, 79-85쪽.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천재교과서, 2020, 85-92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 교학사, 2020, 89-95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좋은책신사고, 2020, 84-90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미래엔, 2020, 86-91쪽.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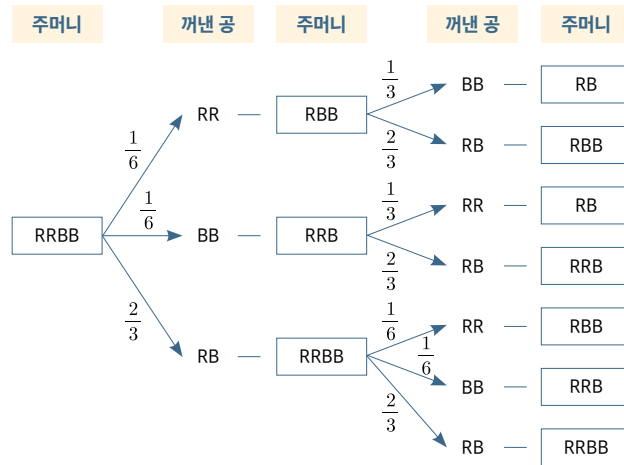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가)의 오목이는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며, 이를 받은 언니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뤘었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낀다. (나)의 어린이집은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원생들의 집에 선물을 보냈으나, 배려 없는 선물에 부부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한다. (다)의 만수는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고, 선생님은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라)의 남편은 부인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 선물을 사줬다. 부인은 처음엔 험담에 조각상을 사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낀다.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 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568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하고 있다.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한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하자면, 먼저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된다. (567자)

[문제 3]

- 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와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R는 빨간 공, B는 파란 공을 나타낸다.
-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 2개(RR)를 뽑을 확률은 $\frac{{}^2C_2 \times {}^2C_0}{{}^4C_2} = \frac{1}{6}$ 이고,
두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RB)를 뽑을 확률은 $\frac{{}^1C_1 \times {}^2C_1}{{}^3C_2} = \frac{2}{3}$ 이다.
-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	선물 개수	발생 확률
RB	2	$\frac{1}{6} \times \frac{1}{3} \times 2 = \frac{1}{9}$
RBB	1	$\frac{1}{6} \times \frac{2}{3} \times 2 = \frac{2}{9}$
RRB	1	$\frac{1}{6} \times \frac{2}{3} \times 2 = \frac{2}{9}$
RRBB	4	$\frac{2}{3} \times \frac{2}{3} = \frac{4}{9}$

- 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	선물 개수	발생 확률
RBB 또는 RRB	1	$\frac{1}{6} \times \frac{2}{3} \times 2 + \frac{1}{6} \times \frac{2}{3} \times 2 = \frac{4}{9}$
RB	2	$\frac{1}{6} \times \frac{1}{3} \times 2 = \frac{1}{9}$
RRBB	4	$\frac{2}{3} \times \frac{2}{3} = \frac{4}{9}$

-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 개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text{기댓값} = 1 \times \frac{4}{9} + 2 \times \frac{1}{9} + 4 \times \frac{4}{9} = \frac{22}{9}$$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이유:**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2점)

변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뤄왔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낌(6점)

(나) **이유:** 어린이집에서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에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6점)

(다) **이유:**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낌(6점)

(라) **이유:** 부인이 갖고 싶던 사자상을 선물해주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혈값에 조각상을 사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낌(6점)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찾은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자신의 언어로 잘 압축하여 글을 맺고 있는지, 즉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 **서론:**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 **결론:**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 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이유와 변화를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 파악: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 (5점),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5점)
②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해 내야 함(10점)

2)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 파악: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5점),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5점)
②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해 보자면,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사 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됨(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도출한 경우	9~15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논리적으로 도출한 경우	16~20점
	②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제시한 경우	9~15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16~20점

[문제 3] 20점 만점

- 첫 번째 시행에서 공을 뽑은 후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6점
- 두 번째 시행에서 공을 뽑은 후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9점
- 게임의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와 그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중앙은 모든 전공이 AI와 만나는
특별한 교육시스템으로
AI 시대를 넘어 AI 세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오고 있는
중앙이 양성할 AI 시대를 이끌
혁신적인 핵심인재가 기대됩니다.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 820-6393 **FAX** 02) 813-8158
<http://admission.cau.ac.kr>

